

이 선 경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DÉJÀ에 관한 고찰

2007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엄 운 주

# DÉJÀ에 관한 고찰

이 선 경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엄 윤 주

# 인 준 서

엄윤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Déjà는 다양한 의미 효과와 복합적인 분포로 많은 언어학자들의 흥미를 끌어들였다. 한편, 표지 déjà와 커다란 유사성을 갖고 있는 형태론적 «시제»인 복합 과거와 déjà의 결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에 입각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표지 déjà에 대한 대표적인 두 학자의 연구를 고찰해 보고, déjà가 쓰인 언술의 분석에서 드러나는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 그 기능의 규칙적인 특징을 밝혀내고, 이 해석들을 걸러내는 매개변수들을 규정지은 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Déjà의 여러 지시 가치들을 밝혀내고, 복합 과거와 결합했을 때 가지는 매개변수를 도구로 불변소를 찾는 것과 함께 각기 다른 형태의 경우를 살펴보기 위해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II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déjà에 관한 이론들의 기본이 되는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을 정리해 보고, 그의 이론의 기본 개념을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현재까지 연구된 déjà의 총체적 용법을 알아봄과 동시에 여러 언술들을 통해 사행의 두 가지 구축 방법에 의해 déjà의 지시치들을 살펴본 J. J. Franckel의 분석과, 서술 연산 관계 구축의 관점에서 déjà를 연구하여 déjà는 관계의 주관적, 개념적, 시제적인 부분을 말하는 문맥을 통하여 관계의 현재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여 déjà 연구에 새로운 각도를 제공한 D. Paillard의 이론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déjà가 나타난 언술들의 검토에서 밝혀진 규칙성들로부터 "déjà는 시간 속에서 P를 실현시키는 가치 p가 우선적으로 P를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 p'과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VU-Thi-Ngan의 가설을 기본으로 p'의 출현 양상에 따른 déjà의 용법을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본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VU-Thi-Ngan이 문맥 속에서  $p'$ 의 출현 양상에 따라 구분지은 세 그룹에 따라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을 다양한 언술들을 통해  $p(ti)$ 와 그와 다른 가치  $p'$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p'(to)$ 이 나타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첫째,  $p(ti)$ 는  $p'(to)$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는데, 이  $p'(to)$ 의 인식은 déjà와는 관계가 없는 별개의 것이다. 이 때  $p'(to)$ 은 언술 안에서 독립적인 존재 양상을 갖지는 않는다. 둘째, déjà는 문맥 안에서 독립적인 출현 양상을 갖는  $p'(to)$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p(ti)$ 를 구축한다. 이 때,  $p(ti)$ 의 인식은  $p'(to)$ 의 유효성에 이유를 제기한다. 셋째, P의 실현으로써의  $p(ti)$ 의 인식은 déjà와는 관계 없이 출현 양상을 갖는  $p'(to)$ 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P의 각각의 실현은 서로에 의해 가시성과 자율성을 갖게 된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1
II.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	3
1. 작용소 엡실론( $\epsilon$ ), 렉시스, 서술 연산 관계	5
1.1. 동일화 연산 작용(identification =)	7
1.2. 상이화 연산 작용(différentiation $\neq$ )	7
1.3. 단절의 연산 작용(rupture $\omega$ )	7
2. 개념체와 개념체 영역	8
2.1. 내부	11
2.2. 경계와 외부	11
3. 이타성의 관계	14
3.1. 필연	17
3.1.1. Nécessaire strict	17
3.1.2. Nécessaire exclusif	18
3.2. 가능	19
3.2.1. Contingent	19
3.2.2. Entre autres	20
III. Déjà에 관한 기존 연구	21
1. J. J. Franckel(1989)	23
2. D. Paillard(1992)	28

IV. Déjà의 시제적 용법의 성격 규정 .....	38
1. Déjà의 의미 가치 고찰 .....	38
1.1.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 ....	39
1.2.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p는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한다. ....	43
1.3.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p는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하지 않는다. ....	46
2. Déjà의 시제적 용법에 대한 가설 .....	51
 V.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 .....	54
1. 그룹 A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에서 p(ti)의 구축은 p'(to)의 잠재성을 움직이게 한다. .....	55
2. 그룹 B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에서 p(ti)는 p'(to)을 제거한다. ....	60
3. 그룹 C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은 각각 독립성을 갖는다. ....	66
 VI. 결 론 .....	74

BIBLIOGRAPHIE

RESUME

# I. 서론

많은 언어학자들이 구조주의의 틀에서 벗어나 언어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면서 오늘날 언술 행위를 근간으로 하는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A. Culioli는 언술 행위를 단순히 개별적 언어활동의 결과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생산과 인지의 차원으로 정의하면서 이미 생산된 언술들을 통해 그 언술을 생산한 주체의 두뇌 속 연쇄 작용까지도 밝히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의 언어학은 언술들의 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언어적 작용들을 일련의 연산 작용들이 관계를 맺는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언술행위 이론을 바탕으로 삼으면서, 현재까지 다양한 의미 효과와 그 복합적인 분포로 언어학자들의 흥미를 끌여 왔던 *déjà*에 대해 고찰해 보려 한다.

II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déjà*에 관한 이론들의 기본이 되는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에 대해 정리하여 그의 언어학적 용어와 관찰 이론의 기본 전제를 알아본다.

III장에서는 현재까지 여러 언어학자들에 의해 연구된 *déjà*의 총체적 용법을 알아봄과 동시에, 사행의 구축을 시간면 뿐만 아니라 시간성과 주관성의 상호작용과 관계를 고려하여 *déjà*의 지시가치를 파악한 J. J. Franckel의 이론과, 서술 연산 관계 구축의 관점에서 *déjà*를 연구한 D. Paillard의 이론을 살펴본다.

IV장에서는 J. J. Franckel의 이론에 입각하여 여러 언술을 분석하며 문맥의 기능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갖는 *déjà*의 규칙적인 특징을 밝혀내고, 이 해석들을 걸러내는 매개변수들을 규정지음은 물론, *déjà*에 의해 도입된 또 다른 가치의 출현 양상에 대해 살펴본 VU-Thi-Ngan의 고찰을 살펴보았다.

V장에서는 역시 VU-Thi-Ngan의 고찰을 통해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을 다

양한 언술들을 통해  $p(t_i)$ 와 그와 다른 가치  $p'$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p'(t_o)$ 이 나타나는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의 예문들은 출처를 특별히 밝히지 않은 경우 J. J. Franckel과 D. Paillard, VU-Thi-Ngan의 저서와 논문에서 차용하였음을 밝힌다.

## II.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

Déjà에 대해 고찰한 언어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학자들의 이론의 배경이 되고 있는 Antoine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théorie de l'énonciation)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살펴볼 이론들의 바탕이 되는 개념과 도구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sup>1)</sup>

A. Culioli는 언어학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인간 세계에 존재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자연어(langue naturelle)<sup>2)</sup>의 다양성을 통해 파악한 언어 활동(langage)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sup>3)</sup>

이와 같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 연구 대상을 랑그(langue)로 한정하였던 것과 달리 Culioli는 언술행위주체(sujet-énonciateur)와 공언술행위주체(co-énonciateur), 시간, 공간으로 구성되는 특수한 언술 상황에서 발생한 언술 행위의 산물인 언술(énoncé)을 그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

1) 이선경 (1994) "A. Culioli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159-214. 참조.

2) Saussure의 랑그의 개념과는 달리, 자연어(langue naturelle)는 특징지어질 수 있고 인지될 수 있는 경험적 산물이며, 지리적 공간 속에 위치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랑가쥬는 이러한 특징을 갖는 각각의 자연어 속에서 구체화 되는데, 즉 랑가쥬는 자연어 속으로 투사되므로 이 자연어를 통해서만 랑가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랑가쥬는 자연어들을 통해 구축되는 사물인 것이다. (Cf. A. Culioli et J. P. Desclés(1981), pp. 20-21.)

3) A. Culioli(1985), p. 1.

한편, 기존의 화용론에서는 언어 활동을 담화 산출 행위(l'activité de l'instantiation du discours)로 파악하는 반면, Culioli는 표상을 구축하는 상징 활동(l'activité de la construction des représentations)을 언어 활동으로 파악하여 화용론이 형태의 용법과 의미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Culioli 자신은 형태의 의미가 갖는 추상적인 형식을 연구한다고 화용론과의 차이를 구분 짓고 있다. 이는 생산된 언술을 단순하게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언술의 생산 과정 및 인지 과정에까지 눈을 돌려 그에 관계된 연산 작용(opération)을 상위 언어적 표상 체계(système de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를 통해 기술하고 표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연산 작용의 형식적인 흔적이나 자취(trace)를 «표지(marqueur)»라고 하는데 언술은 표지의 배열이다. 따라서 Culioli는 «언술 행위(énonciation)는 연산 작용의 흔적인 표지의 배열로 되어 있는 언술을 생산하고 인지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4)</sup> 이처럼 언어 활동을 표상을 구축하는 상징 활동으로 파악한 Culioli는 다음과 같이 표상 작용을 세 단계(3 niveaux)로 구분 지었다.

NIVEAU I : 물리, 문화적 속성의 총체로 어휘를 통해 나타나는 개념체(notion)를 구성하는 정신의 상징적 표상 작용(représentation symbolique) 단계.

⇒ 정신적 표상 단계(représentation mentale)

NIVEAU II : 다양한 자연어들에 의해 표상 작용이 언어적으로 실현되는 단계. I 단계 표상 행위의 연산 작용의 흔적이 표지로써 나타남.

⇒ 언어적 표상 단계(représentation linguistique)

NIVEAU III : 언술에 나타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구축한 규칙과

4) Cf. 이선경(1994), "A. Culioli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p. 163.

작용들의 체계인 상위 언어적 표상 체계.

⇒ 상위 언어적 표상 단계

(représentation métalinguistique)

이 세 단계에서 II 단계는 I 단계에서 일어난 작용들의 흔적을 토대로 구성됨으로 II, III 단계의 관계를 통해 I, II 단계의 관계를 유추해 내는 것이 Culioli에게 있어 언어 이론을 만드는 이론화인 것이다.

### 1. 작용소 엡실론( $\epsilon$ ), 렉시스, 서술 연산 관계

Culioli는 «어떤 용어는 어떤 용어에 한정된다.»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작용소 엡실론(epsilon,  $\epsilon$ )을 설정하게 된다. «X  $\epsilon$  Y»라는 표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X는 Y에 의해서 한정 작용, 지표 결정 작용, 위치 결정 작용을 받는다.» 그리고 근거가 되는 Y는 기본 지표(repère)이며, X는 한정 작용을 받는 지표(repéré)로 기능한다.

언술 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렉시스(lexis)라는 개념들이 구성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lambda$ 로 표시하는 이 렉시스는 서술 연산 관계의 기본으로 이를 토대로 모든 가능성을 가진 언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렉시스는 서술 연산 관계에서 일차적 가치를 지닌 일종의 메타언술<sup>5)</sup>이며, 동시에 다른 서술 관계를 파생시키는 생성체이다. 예를 들면, <Aline, avoir, chat>라는 렉시스는 다음과 같은 구(syntagme)와 문장(phrase)을 파생시킬 수 있다.

- Aline, son chat.

---

5) ex) <Aline, avoir, chat>

- Aline, elle, son chat.
- Aline a un chat.
- Aline, elle, a un chat.
- Le chat d'Aline.

이처럼 언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렉시스( $\lambda$ )와 근원 언술 상황( $Sit_0$ )<sup>6)</sup> 사이에 관련을 맺어주는 작용소가 엡실론이다.

<  $\lambda \in Sit$  >

이와 같은 표기는 서술 연산 관계가 한정 작용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거나, 혹은 서술 연산 관계가 유효화 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엡실론은 동일화 연산 작용(identification =)과 상이화 연산 작용(différentiation  $\neq$ ), 그리고 단절의 연산 작용(rupture  $\omega$ )의 세 가지 가치를 갖는다.

---

6) 모든 언술 행위가 있기 위해서는 언술 행위 주체자 S(sujet énonciateur)와 언술 상황(situation énonciative)를 필요로 하는데, Culioli는 언술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의 언술 변수들을 제시했다. (A. Culioli(1973), p. 88.)

- $S_0$  : 언술 행위 주체의 원점 (sujet énonciateur origine)
- $S_1$  : 발화 행위 주체 (sujet de locution)
- $S_2$  : 사건의 주어 (sujet de l'événement)
- $T_0$  : 언술 행위 순간의 원점 (moment de l'énonciateur origine)
- $T_1$  : 발화 행위 순간 (moment de locution)
- $T_2$  : 사건의 순간 (moment de l'événement)
- $Sit_0(S_0, T_0)$  : 근원 언술 행위 상황 (situation énonciative origine)
- $Sit_1(S_1, T_1)$  : 발화 상황 (situation de locution)
- $Sit_2(S_2, T_2)$  : 사건의 상황 (situation de l'événement)

### 1.1. 동일화 연산 작용(identification =)

동일화 연산 작용은 렉시스( $\lambda$ )와 근원 언술 상황( $Sit_0$ ), 두 요소가 동일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langle T_0=T_1=T_2 \rangle$ 은 언술 행위 순간의 원점  $T_0$ , 발화 행위 순간  $T_1$ , 사건의 순간  $T_2$ 가 일치함을 나타낸다. 즉 언술에 현재 시제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1.2. 상이화 연산 작용(différentiation $\neq$ )

상이화 연산 작용은 렉시스( $\lambda$ )와 근원 언술 상황( $Sit_0$ ), 두 요소가 일치하지 않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langle T_0 \neq T_1 \neq T_2 \rangle$ 의 연산 작용의 흔적으로 복합 과거 표지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3. 단절의 연산 작용(rupture $\omega$ )

상이화 연산 작용은 렉시스( $\lambda$ )와 근원 언술 상황( $Sit_0$ ), 두 요소 사이에 동일화 연산 작용도, 상이화 연산 작용도 아닌 단절 작용이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면,  $\langle Sit_0(S_0, T_0) \omega Sit_2(S_2, T_2) \rangle$ 가 있을 때,  $\omega$ 는 근원 언술 행위 상황과 사건의 상황이 단절 관계에 있음을 뜻한다. 즉 언술 장면에 사건의 상황이 나타나 있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Paul n'est pas étudiant.»에서는 두 용어 Paul과 étudiant 사이에 관계의 단절 작용이 일어난 것이다.

한편, 렉시스에서 서술 연산 관계가 성립되고 이 서술 연산 관계에서 화자가

개입하여 언술 행위 상황을 참조할 때, 특정한 지시 가치를 지닌 언술 행위로 전이되어 구축되고 렉시스는 서술 연산 관계가 성립된 후 특정한 언술 상황에 좌표 결정 작용을 받는다.

$$\langle a r b \rangle \underline{\underline{E}} \text{Sit}(S/T)$$

언술 행위 상황은 언술행위주체 S와 시간의 변수 T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술 행위 관계는 언술 행위와 언술의 관계, 언술행위주체와 언술의 주어와의 관계, 언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언술이 지시하는 사건이 이루어지는 시간의 관계 등 일련의 관계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구축된다. 이렇게 여러 언술 상황의 변수들로 구성된 조직 체계(systeme cordonné)를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langle a r b \rangle \underline{\underline{E}} \text{Sit2}(S2, T2) \underline{\underline{E}} \text{Sit1}(S1, T1) \underline{\underline{E}} \text{Sit0}(S0, T0)$$

이러한 언술 행위 조직 체계의 일련의 좌표 결정 작용에 의해 같은 렉시스에서 나온 등가치의 언술들이 서로 다른 상, 시제, 양상의 가치를 갖는 것이다.

## 2. 개념체와 개념체 영역

Culioli는 개념체(notion)를 «물리, 문화적 속성의 총체로 나타나는 복합적인 표상 체계»로 정의 하였다.<sup>7)</sup> 예를 들어 livre(책)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에 해당되는 개념체는 서술 연산 관계(relation prédicative)를 나타내는 /être livre/(/책이다/)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체로부터 Culioli는 양화 작용소

7) FRANCKEL, J. J. & PAILLARD, D.(1998), Aspect de la théorie d'Antoine Culioli, p. 56.

(quantification)와 질화 작용소(qualification)를 통해 출현소(occurrence)를 구축하여 현상을 편리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sup>8)</sup> 즉 언어학자는 개념체로부터 형식적 속성을 갖추고 있는 개념체 영역(domaine notionnel)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는 반드시 출현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출현소에는 두 가지 유형이 존재한다.

첫째는 현상적 출현소(occurrence phénomène)이다. 이는 언어습득이나 진화에 관련된 작용의 영역으로 언어학의 영역에만 해당될 뿐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그대로의 혼질적인 속성(être hybride)을 가지는 사물이나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역이다. 둘째는 언어학적 추상적 출현소(occurrence abstraite linguistique)이다. 이는 현상적 출현소를 바탕으로 구축되는 것으로서 언어학자의 도구가 되는 상위 언어적 속성을 갖는 출현소이다.

또한 개념체 영역은 다음의 두 가지 연산 작용에 의해 구조화 된다.

- ① 양화 연산 작용(QNT) : 시· 공간적인 한정 작용.
- ② 질화 연산 작용(QLT) : 질적인 한정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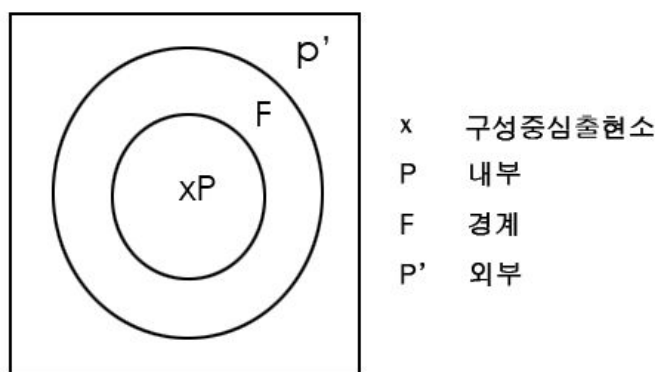
개념체 영역에 하나의 출현소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를 다른 출현소와 시· 공간적으로 구별하여 한정하는 것이다. 이는 하나의 출현소에 의해 상황적 좌표 결정(repérage situationnel)이 일어났으며, 이 때 이 출현소는 상황적 출현소(occurrence situationnelle)의 지위를 갖게 된다. 양화 연산 작용은 예를 들어 «un livre»라고 했을 때, 이는 책의 질(質)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한 권의 책이 시· 공간적, 즉 상황적으로 다른 또 한 권의 책과 구별, 한정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질화 연산 작용은 구성 중심 출현소(centre organisateur)<sup>9)</sup>를 중심으로 일

---

8) A. Culioli(1985), op. cit., p. 29.

9) 구성 중심 출현소란, 개념체 영역에서 내부(I)에 존재하며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는 하나의 모델(étalon)에 해당한다. 이 중심인자로 인하여 내부에 있는 출현소들이 중심에 자리잡게 되

어난다. /être chat/의 예를 통해 살펴보면, 언어 사용자가 "chat"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고양이"라는 단어의 일정한 이미지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언술을 생산할 수 있다. 이 다양한 언술들을 통해 /être chat/이라는 개념체의 추상적, 언어적 출현소의 집합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처럼 "고양이"라고 하면 "고양이다운 고양이", "전형적인 고양이"로서 하나의 중심 잡혀진 개념체(notion centrée)를 구축하고, 이것이 바로 점차적으로 고정화되는 추상적인 구성 중심 출현소인 것이다. 따라서 개념체 영역은 구성 중심 출현소를 구축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이루는 내부(Intérieur) P와 내부 P의 언어학적 보집합(complémentaire linguistique)<sup>10)</sup>에 해당하는 외부(Extérieur) P', 그리고 P와 P' 사이에 위치하는 경계(Frontière)로 구축된다. 이처럼 구조화된 개념체 영역을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서 나타낼 수 있다.



<도식 1>

어 동일화 작용(identification)이 일어나는 것이다.

10) 언어학적 보집합의 개념은 위상 수학에서 그 개념을 빌어왔지만 이는 수학이나 논리학의 보집합과는 크게 다르게 기능한다. 달리 말하면, 수학이나 논리학의 보집합은  $\bar{P}$  (P가 아니다.)로 표시되어, P나  $\bar{P}$ , 두 가지로만 기능하나 언어학적 보집합은 P가 아닌 모든 것을 의미하며 그 정도에 따라 F나 P'에 해당된다는 점이다. (이선경(1994), op. cit., p. 187.)

## 2.1. 내부

Culioli는 개념체  $(P, P')$ 가 있을 때  $P$ 의 자질들을 전형적으로 동일하게 갖는 출현소들의 부류를 «내부(Intérieur)»로 정의하였다. 이 때 내부를 구축하는 구성 중심 출현소는 문제되는 자질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하나의 상징적으로 규정된 출현소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Culioli는 이 구성 중심 출현소를 “거의 원초적인 지위를 갖는 그 자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점의 술어”로써 플라톤의 원형(原形, archétype)에 비하여 «절정점(centre attracteur)»이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 구성 중심 출현소를 기준으로 연설 행위 주체는 중심소에 질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동일화 작용(opération d'identification)을 거쳐 하나의 출현소가 구축되고, 근방(voisinage) 영역에서는 모든 출현소가 다른 출현소에 동일시되며 내부가 형성되는데, 이 때 동질성(homogénéité)을 갖는 내부는 열린 집합(ouvert)의 형식적 속성을 갖는다. 이 때 동일화 연산 작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뤄질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형(type)에 비추어 보아 질적으로 같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차이를 고려하여, 즉 제거해야 할 이타성을 고려하여 이 이타성을 제거함으로써 동일화 연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 이 이타성을 제거하지 않고 존속시킨다면 상이화 연산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념체 영역의 내부는 모든 이타성이 제거되어 동질성으로 구축되고, 열린 집합의 특징을 갖는다.

## 2.2. 경계와 외부

Culioli는 개념체 영역의 « $P$ 의 속성과 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단지 다른 점이 있는 속성(simplement autre que  $P$ )»을 지닌 출현소의 집합을 «경계(Frontiè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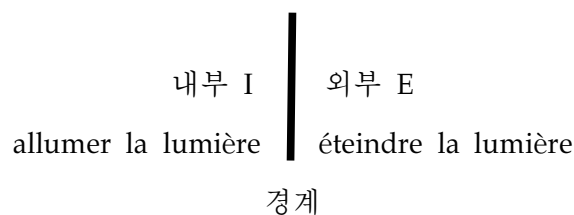
라 칭한다. 이는 전형적인 가치를 지닌 P의 영역에서 출발하여 P의 자질과 조금이라도 다른 점이 도입되는 것이 이타성, 즉 상이화 연산 작용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부(I)가 열린 집합의 특징을 지닌 반면, 경계는 닫힌 집합(fermé)의 특징을 지니고 내부(I)의 언어학적 보집합(complémentaire linguistique)에 해당한다. Culioli는 이를 다음과 같은 형식 용어로 표현하였다.

«열린 집합인 내부(I ouvert)의 언어학적 보집합은 내부의 닫힌 집합이고, 이는 닫힌 집합 내부(I fermé)로 표기되며 이것이 바로 경계 지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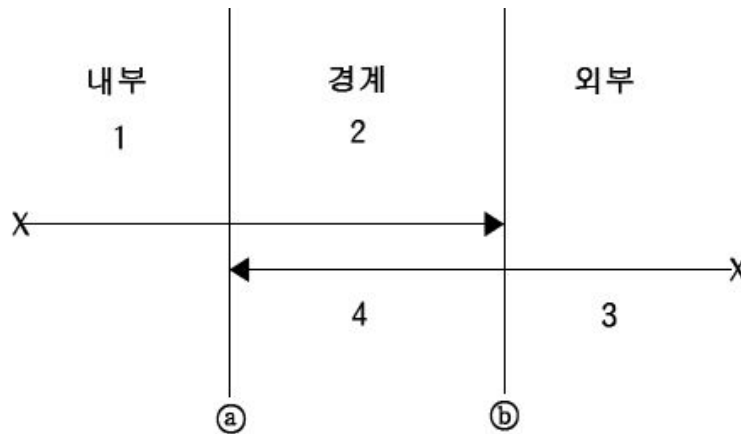
한편 «외부(Extérieur)»는 «P의 속성과 전혀 다른 자질이 있는 지대(tout autre que P)»를 칭한다. 또한 이 지대는 닫힌 집합 내부(I fermé), 즉 경계의 언어학적 보집합에 해당된다.

Culioli는 경계 지대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해 구축된다고 «allumer/éteindre la lumière»와 «être cru/cuit»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어떠한 순간에 단절에 의해 질적인 차이가 일어난 개념체 영역의 두 지대 P와 P'은 분리된다. 이 경우에 경계는 비어있는 것으로써 단절(coupure)로 기능한다. 그리고 두 영역은 질적인 이타성으로 구분되는데 «allumer/éteindre la lumière»로 예를 들면, 전기의 경우 켜져 있거나 꺼져 있는 두 상태만이 가능하고 그 중간 단계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계는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상할 수 있다.



둘째, 내부와 외부를 구분 짓는 경계가 위와 같이 비어있지 않고 중첩 (chevauchement)된 경계가 구축된다. «être cru/cuit» 술어에 해당되는 개념체 영역을 Culioli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도식 2>

«être cru/cuit» 개념체 영역의 각각의 지대를 도식에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 ① **내부에 위치한 1** - 구성 중심 출현소와 동일화 작용이 일어나는 내부에 위치하므로 «être vraiment cru»의 속성.
- ② **경계에 위치한 2** - 내부와 질적인 이타성이 개입되어 상이화 연산 작용이 일어난 내부의 닫힌 집합에 해당하는 «autre que cru, pas vraiment cru, cru en quelque mesure que ce soit»의 속성. 이 때 내부의 지대를 벗어나 «être cru»의 자질을 최소의 정도도 갖지 않은 가상의 지점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를 마지막 점 (dernier point)이라 부르며 <도식 2>에서는 ②에 해당한다.

- ③ **외부에 위치한 3** - «être cru»와의 관계에서 엄격한 외부(extérieur strict)에 해당하는 외부 지대는 그것 자체로는 «être cuit»의 내부 지대처럼 기능하여 «vraiment cuit, complètement cuit, tout autre que cru, plus rien à voir avec cru»의 속성을 갖는다. 또한 외부 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중심 출현소, 즉 «être cuit»의 속성을 가장 잘 나타내어 주는 출현소와 «être cru»의 외부를 구성하는 다른 출현소는 동일화 연산 작용이 일어나 열린 집합에 해당됨을 주의해야 한다.
- ④ **경계에 위치한 4** - 이 지대는 외부와의 관계에서만 정의되는 지대로써 2번과 4번의 중첩 부분이 바로 경계 지대를 나타내며, 첫 번째 경계는 단절로써 기능한 반면에 이 경계에는 하나의 구간 (intervalle)이 형성된다. 즉 2번 지대는 내부와의 관계에서 구축된 경계 지대이고 4번 지대는 외부와의 관계에서 구축된 경계 지대 인 것이다. 한편 ⑥를 구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지대에서 출발하여 최소한의 자질도 갖고 있지 않은 가상의 마지막 점이 바로 ①이다.

### 3. 이타성의 관계<sup>11)</sup>

다음의 문장들을 살펴보자.

- ① Paul a oublié ses clés.

---

11) 이선경 (2001) “양상modalité에 관하여”, 프랑스학 연구 제21권, 서울, 프랑스학회, pp. 273-294. 참조.

이 문장에서 언술행위주체는 서술 연산 관계 < a r b >=<Paul, oublier, clés>를 구축했으며, 이는 내부I에 위치하는 긍정적 단언(assertio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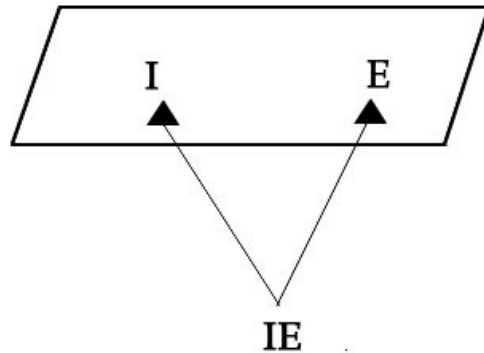
② Paul n'a pas oublié ses clés.

이 문장은 언술행위주체가 < a r b >=<Paul, oublier, clés>를 유효화되지 않은 것, 즉 외부E를 선택한 것으로써, 이는 부정적 단언이다.

③ Paul a pu(a dû) oublier ses clés.

이 언술에서 우리는 내부I도, 외부E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단언에서 처럼 렉시스에 대해 확인하는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술행위주체는 두 가치 중에 하나의 가치를 고려하여 겨냥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Culioli는 «maison»이란 단어를 예로 들어 IE(lire double barre ou E renforcé)로 표기할 수 있는 영역의 밖(hors domaine)에 위치한 단절된 위치(position décrochée), 즉 개념체의 언급(mention de la notion)의 차원을 설정하고 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었다.

IE는 I도, E도 아니지만 I 또는 E를 취하게 할 수 있는 출발점(point de départ)인데, maison의 IE는 I나 E에 위치하지 않으며 어떠한 정확성도 갖고 있지 않은 단지 «être maison»이 될 수 있는 개념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다. Maison이라는 개념에 대한 언급은 maison의 I/E와 관련하여 2개의 지위를 갖는데 이는 이 공간들의 어느 한쪽에 대해서 동시에 잠재성(potentialité)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 때, I, E, IE의 세 개의 극은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 언술행위



주체가 I를 선택해서 유효화하면 E는 제외되어 유효화될 수 없으며(긍정 단언), 반대로 언술행위주체가 E를 선택하면 I는 제외된 것을 뜻한다.(부정 단언) 한편 IE에 위치한다는 것은 I도, E도 제외하지 않고 잠재적으로 I 또는 E를 선택할 수 있음을 뜻한다.

IE는 개념체 영역과 관계하여 «hors P»로 표기되는데, 이 «hors P»는 상이화 연산 작용이라는 이타성이 작용한 P'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P 또는 P'을 구축할 수 있는 단절 연산 작용이라는 또 다른 이타성이 작용하는 위치에 자리잡는 것이다. 따라서 «hors P»와 «IE»는 다음과 같은 가치를 갖는다.

$$\text{HORS P} = \text{ni P ni P'}, \text{P ou P'}$$

$$\text{IE} = \text{ni I ni E}, \text{I ou E}$$

이처럼 단절된 위치(IE)에서만 언술행위주체는 I 또는 E를 목표(visée)할 수 있으며, 출발점(IE)와 목표점 사이에는 거리 혹은 간격(hiatus)이 있다. 그러나 이 거리를 채우려는 목적과 목표된 가치에 도달하려는 목적성(télécomie)이 있으므로 이 거리는 채워질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치 중 하나의 가치를 고려하거나 목표로 할 때 개념체 영역은 필

연(nécessaire) 개념과 가능(possible) 개념을 구축하는데, Culioli는 이 두 개념을 nécessaire strict, nécessaire exclusif, contingent, entre autre로 세분화하고 있다.

### 3.1. 필연

어떤 관계  $X_i-Y_i$ 가 있을 때 이 관계가  $X_j-Y_i$ ,  $X_i-Y_j$  같은 관계들이 구축되는 것은 배제하고 오로지  $X_i-Y_i$  관계만이 가능할 때, 이를 필연 관계로 정의한다.<sup>12)</sup> 따라서 필연 관계의 경우는 동질적인 영역(domaine homogène)에만 관계되고 그 보집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필연 관계는 «nécessaire strict»와 «nécessaire exclusif»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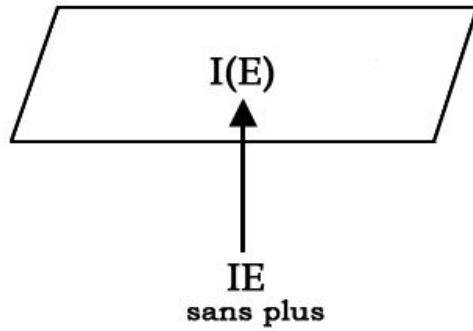
#### 3.1.1. Nécessaire strict

이 경우는 언어학적 보집합(complémentaire linguistique)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즉 이것은 어느 하나의 가치에만 관계되는 경우인 필연의 관계에 이르는 다른 길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단지 하나의 길이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un chemin sans plus»의 경우이며 다음과 같이 표식화할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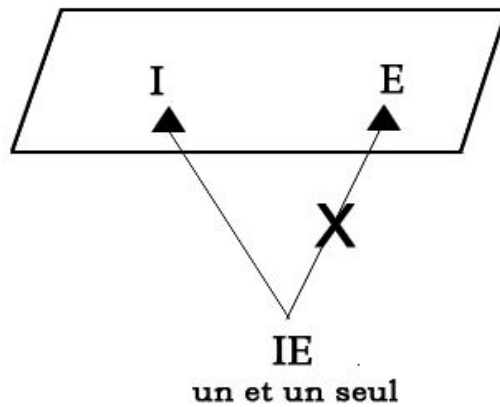
12) D. Paillard, "Nécessaire et Possible, A propos des relations interénoncés", BULAG 8, p. 84.

"La distinction entre possible et nécessaire s'inscrit dans la problématique de la construction topologique d'un domaine notionnel telle qu'elle a été développée par Culioli, en termes d'ouvert et de fermeture(construction d'une frontière permettant d'associer à une notion son complémentaire linguistique)"



### 3.1.2. Nécessaire exclusif

이 경우는 일단 언어학적 보집합을 구축한 후, 이 보집합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함으로써 보집합의 부재를 제시한다. 즉 두 개의 길을 일단 고려한 후 그 중 유효하지 않은 가치를 제거하여 보집합에 해당하는 가치가 없게 되어 오직 하나의 가치만을 갖는 경우이다. 이 경우를 «un chemin et un seul»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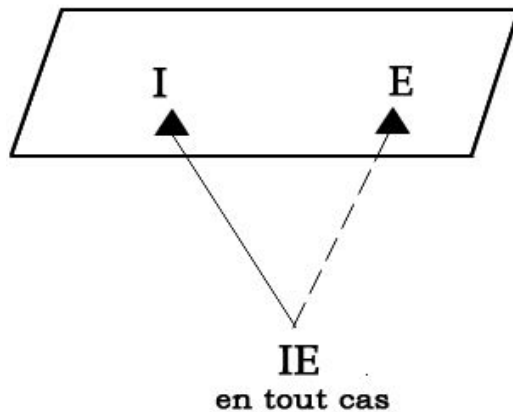


### 3.2. 가능

$X_i$ 와  $Y_i$  사이에  $X_i-Y_i$  외에도 다른 관계, 즉  $X_i-Y_j$ 나  $X_j-Y_i$  같은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면 이 관계를 가능 관계(relation possible)로 정의할 수 있다.<sup>13)</sup> 가능 관계로 한정되어진 관계는 이질적인 영역(domain hétérogène)처럼 나타내어지고, 경계의 구축 방식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sup>14)</sup>

#### 3.2.1. Contingent

이 경우는 경계가 명시적으로 이미 구축된 것은 아니지만 경계가 구축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우리는 실제 언술 내에서 경계 구축의 표지를 갖지 않고,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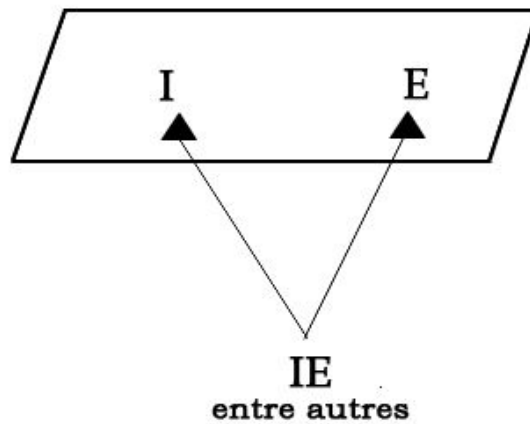
13) Ibid., p. 83. "Étant donnée un relation  $X_i-Y_i$  entre  $X_i$  et  $Y_i$ , cette relation est déterminée comme possible si l'on a ou l'on peut avoir à côté de  $X_i-Y_i$ ,  $X_i-Y_j$  ou encore  $X_j-Y_i$ ."

14) Ibid., p. 84. "une relation déterminée comme possible se présente comme domaine hétérogène, ce qui renvoie à la présence d'une frontière."

이것은 X라는 두 발생 경우들에 대한 것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라 X의 보집합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로 그 보집합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 3.2.2. Entre autres

이 경우는 contingent과는 달리 경계가 명시적으로 구축되어 보집합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이며 따라서 언술들 속에서 그 표지들을 찾을 수 있다.



entre autres의 경우 위의 contingent에서 질적인 한정작용이 추가된 경우이다.<sup>15)</sup>

---

15) Ibid., p. 85.

### Ⅲ. Déjà에 관한 기존 연구

오늘날 déjà는 이를 단순한 시간 부사로 여기던 전통문법에서 벗어나, 상(aspect)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 시간 부사가 단순하게 완료(accomplí)/미완료(inaccompli)의 상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사행에 관여하여 상적 가치로서 동사 자체의 사행을 제한하는 것으로써 여겨지고 있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사전에 나타난 déjà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a. déjà duratif (지속의 déjà)

- Et mon grand-père était déjà fâché avec son grand-père.<sup>16)</sup>

b. déjà intératif (반복의 déjà)

- Vous m'avez déjà dit en effet que vous vous considérez comme un animal!<sup>17)</sup>

위의 두 문장을 C. Fuchs의 관점에서 설명하면 첫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지속의 déjà는 어떠한 시점에서 동작의 기동, 혹은 개시(incoatif)를 나타내는데, «être déjà fâché»는 이미 화가 난 행위가 시작되어 지시점 또한 «être fâché» 사행의 진행 속에 놓이게 된다. 이 때 déjà는 이중성을 띠게 되는데 하나는 주어가 처한 시점에서 어떠한 상태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상태가 시작된다는 기동상

---

16) M. Pagnol(1989), *La femme du boulanger*, Édition de Fallois, p. 22.

17) *Ibid.*, p. 163.

(incoatif)의 가치와 완료상의 가치를, 또 그 새로운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속상(duratif)과 미완료상의 가치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두 번째 문장에 해당되는 반복의 déjà는 주어가 «dire»하는 행위를 이미 한 번 이상 행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완료상과 반복상(répétition)을 함께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déjà가 어떠한 동사 시제를 취하느냐에 따라 지속상의 가치를 선택하거나 반복상의 가치를 선택하거나 두 가치를 공유하기도 하면서 나타나는 상적 가치가 달라진다. Z. Vendler의 동사 분류법<sup>18)</sup>에 따라 복합 과거와 déjà의 의미 관계를 한 번 살펴보자. 복합 과거란 이야기된 순간에 이미 지나가고 성취된 사실을 나타내며, 현재와 연관이 있는 과거 시점에 완료된 사실을 나타낸다.<sup>19)</sup> 이처럼 복합 과거는 어떤 상태나 동작의 완료 의미를 간직하므로 Vendler의 4가지 동사와 결합되면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

- Elle est déjà devenue riche. (상태)
- Il en a déjà parlé. (행위)
- Il a déjà refermé derrière moi. (완료)
- J'ai déjà gagné deux kilos. (성취)

이처럼 déjà는 복합 과거와 결합될 때 앞에서 본 지속상과 반복상을 모두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C. Fuchs는 문맥상에서 해석의 표지들에 따라

---

18) Z. Vendler(1967)

Vendler는 동사를 그 의미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하였다.

1. 상태동사(verbe d'état) : être, avoir, devenir, rester, etc
2. 행위동사(verbe d'activité) : marcher, courir, parler, chanter, etc
3. 완료동사(verbe d'accomplissement) : fermer, peindre, marcher, courir, etc
4. 성취동사(verbe d'achèvement) : gagner, perdre, arriver, mourir, oublier, etc

19) M. Grevisse, Le bon usage, p. 1294.

만들어지는 문장의 용인 가능성은 문맥 속에 들어 있는 일련의 변수들에 따라 하나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문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sup>20)</sup> 한 가지 사행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성립할 경우, 동사의 의미나 상의 가치가 문장 전체의 해석이나 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déjà의 가치가 이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하여 화자나 청자는 상황에 맞는 해석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이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언술 행위 이론에 입각한 J. J. Franckel(1989)과 D. Paillard(1992)의 연구가 중요한 이유라 할 수 있겠다.

이제 J. J. Franckel(1989)과 D. Paillard(1992)의 déjà에 관한 연구를 간단히 살펴보자. 이 두 학자의 déjà에 대한 접근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이들의 이론은 déjà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여를 했다.

## 1. J. J. Franckel(1989)

J. J. Franckel(1989)은 «Etude de quelques marqueurs aspectuels du français»에서 déjà에 관해 한 장(章)을 할애하였다. J. J. Franckel의 이론은 A. Culioli의 언술 행위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 A. Culioli는 모든 유형의 언술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언술 상황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자연어들을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을 지배하는 불변소(invariant)를 찾아내고 보편적인 언어활동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그는 모든 언술 행위 구성의 기본 변수로서 S와 T의 부류를 정했는데, S는 언술행위주체를 뜻하고 T는 언술 행위의 시·공간을 뜻한다. 따라서 T에 입각하여 순간 부류가 생기고, S에 입각하여 개념체 영역이 구축된다. J. J. Franckel은 전통문법에서 시간 부사로 인식한 déjà를 시간

---

20) C. Fuchs(1988), "Encore, déjà, toujours de l'aspect à la modalité", *Temps et Aspects*.

적인 면(T)뿐만 아니라 사행 구축의 주관적인 변수(instance subjective de construction des procès : ISCP)를 고려하여 «Déjà는 한 사행의 독립적이고도 자율적인 두 구축 간의 대립을 작용케 한다. 하나는 주관적인 변수(ISCP)와 관계되고, 다른 하나는 시간적 지표(T)와 관계되는데, 주관적 지표는 이 대립에 의해 시간적 지표보다 덜 중심화되어 나타난다.»(p. 257)라는 déjà의 일반적인 기능에 관한 가설로부터 déjà가 나타나는 조건을 규정지으며 déjà의 가치들에 대해 체계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는 «이 가치들의 다양성은 시간 밖(hors temps)에서 P의 구축 양상의 다양성에 기인 한다.»(p. 260)라고 주장하며 시간 밖에서의 P의 구축에 대한 두 양상에 속하는 두 가지 가치의 부류에 대해 연구했다.

A. «전적으로 시간의 면 바깥에서 일어나는 P의 구축은 P를 위치시키는 t(아직 자리 잡지 않은(non-situé))의 존재와 대립되어 있다.» 이 시간 밖에서의 P의 구축 양상은 «경험의 과거(paassé d'expérience)»의 가치를 가리키는 것이며, J. J. Franckel은 다음의 두 예문을 구분 지으며 설명하였다.

- Tu as déjà mangé des blinis?
- Cet objet a déjà servi.

두 예문의 차이를 살펴보면, 첫 번째 예문은 «P는 위치 결정(situé)되고, 한정된(déterminé) 어떤 t와 관련하여 좌표 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에 해당되겠고, 두 번째 예문은 «déjà는 사실상 시간 차원에서 P의 첫 번째 위치 결정(한정 작용)이 t의 면에 위치하지 않는 이상, 시간 속에서 P의 첫 번째 위치 결정은 더 이상 가능성의 영역 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에 해당된다.

B. 시간 밖에서 P의 구축의 두 번째 양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ISCP의 비현동화(non-actualisé)는 위치 결정된 t에서 현동화된 것과 대립하고 있다.» 여기서 현동화된 것이란 시간 속에서, 그리고 행해진 것들 속에서의 좌표 결정을 의미 한다. J. J. Franckel에 따르면 이 양상이 첫 번째 경우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다고 밝히고 있다 : «Déjà에 의해 작용된 대립은 개념적 구조화를 내포한다. 유효 가능한 것들(validable), 고려되어진 것들이 시간 속에서 위치 결정된 것에 의해 실격된 것, 움직이지 않는 것, 즉 굳어진 것으로써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위치 결정된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개념으로 움직여서 이 가능한 것을 제거한다.»(p. 264) 이처럼 J. J. Franckel은 유효 가능한 것과 위치 결정된 것이 동시에 같은 영역에서 대립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J. J. Franckel은 이러한 유형의 대립으로 생겨나는 각기 다른 가치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첫째, ISCP에서 독립적으로 조작된 사행의 구축이 사행을 위치 결정하는 시간의 존재(위치화되지 않은)와 대립해서 «경험의 과거(passé d'expérience)»의 지시치를 나타낸다.

둘째, ISCP로서는 아직 현동화되지 않은 것(non-actualisé)은 위치 결정된 시간(t situé)속에서 이미 현동화된 것(actualisé)과 대립된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déjà를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가치로 분석하였다.

- a. 예측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낸다.
  - plus tôt que prévu 가치
- b. 이미 행해진 것은 더 이상 행할 것이 없다.
  - ce qui est fait n'est plus à faire 가치

c. 이익의 가치와 손해의 가치.

- le bénéfactif / le détrimental 가치

또한 J. J. Franckel은 déjà에 대해 약화된 앎(savoir dégénéré)의 내용을 언급하며 «Quel est votre nom, déjà?»를 제시했다. «savoir son nom - 그의 이름을 아는 것»이 유효 가능한 것(validable)으로 제시되면서 동시에 질문을 통해 위치 결정된 것(localisé)으로 구축되는데, déjà에 의해 유효 가능한 앎과 위치 결정된 앎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그는 이미 위치 결정된 앎이 시간 속에서 망각의 형태를 취하면서 약화된 앎의 내용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p. 282)

또한 부정을 나타내는 ne déjà plus가 결합되었을 때의 경우로 다음과 같은 언술을 제시했다.

- Elle ne danse déjà plus.

이 언술을 통해 그는 «plus tôt que prévu»의 가치를 이끌어 내었다. 그러나 이 언술에 'exactement'이나 'tout à fait' 등을 덧붙이게 되면 춤을 추는 행위가 시간적으로 외부로 옮겨 갔고, 개념적으로도 진정한 의미의 춤이라 부를 수 있는 내부에서 벗어났음을 알 수 있다.

- Il ne marche déjà pas, alors si en plus tu le jettes par terre..

- Déjà, je n'aime pas beaucoup les film policiers, alors si en plus  
c'est un navet..

마찬가지로 위의 언술들에서는 déjà를 'd'abord'로 표현할 수 있으며 사행의 구축이 처음부터 외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따라서 ne plus는 사행의 시간적 경계 구축의 흔적이고, ne pas는 개념체 영역의 경계의 흔적이라는 것이다.(p. 279)

결론적으로 J. J. Franckel은 déjà는 사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행과는 무관하게 ISCP와 T가 관계되는 두 구축의 대립 작용의 흔적이라고 밝혔다. 즉 déjà는 ISCP면에서 가능한 것(possible)이나 목표된 것(visé)의 영역으로 구축된 것이 T면에서 실제로 실현된 것, 실행된 것과 대립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가설에서 지표가 중심화 되었다는 것은 사행이 사건 속에서 이미 구축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중심화 되지 않았다는 것은 가능한 것이나 목표된 것이 아직 구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déjà는 T에 의한 사행의 구축이 ISCP에 의한 구축보다 더 중심화된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처럼 J. J. Franckel의 연구에서는 déjà가 나타난 아주 다양한 유형의 언술과 함께 풍부한 자료체를 접할 수 있다. 또한 표지 déjà와 관련된 출현 조건들과 함께 제약들까지도 치밀하고 세심하게 분석하여 가설을 증명하였다. 문맥의 다양한 요소들(C<sub>1</sub>의 한정 작용, 사행의 어휘 본질, 다양한 언술이 등장하는 문맥들, 상호 주관적 관계 등)에 따른 déjà의 기능 분석 또한 철저히 연구되었다. 그는 déjà가 나타난 언술들의 의미 작용을 통하여 이 표지의 특징을 찾고자 하였다. 하지만 déjà의 시제적 용법과 비시제적 용법의 정확한 구별을 시도하지는 않았다. 또한 그의 연구에서는 déjà와 복합 과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석 또한 찾아볼 수 없었다.

## 2. D. Paillard(1992)

D. Paillard(1992)는 «Déjà et la construction de l'énoncé»에서 déjà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그는 서술 연산 관계를 구축하는 관점에서 déjà를 연구하였는데, 여러 언술들을 제시하며 déjà의 «세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다음과 같이 A, B, C 세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A 유형.** (a) Il est déjà trois heures.

(a1) Quelle horreur, il est déjà trois heures. Je ne suis terriblement en retard.

(a2) Comme le temps passe, il est déjà trois heures.

(a3) On a le temps - Je te signale qu'il est déjà trois heures. Il reste au plus une demie-heure.

(a4) Tu te rends compte, il est déjà trois heures et Paul n'est toujours pas là.

(a5) - On part à trois heures.

- Il est déjà trois heures.

Paillard가 제시한 바에 따르면, 위 예문들에서 공통적으로 "trois heures"가 예상 밖의 가치로서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언술행위주체가 "trois heures"라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선형적으로 기대했다는 것이다. 이 다른 가치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고, 주관적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Paillard는 말하고 있다. 위 언술들에서 살펴본 다른 가치들은 기대했던

것이나 어떠한 일을 상기할 때, 논쟁이 일어날 때와 관계되는 가치들이고, 우리는 이들을 통해 의미효과가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또한 déjà가 있는 언술과 déjà가 없는 언술의 유사함은 문맥에 따라 더 강해지기도, 덜 강해지기도 한다고 하여 문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p. 34) 한편, 위 예문들에서 또한 공통적으로 “trois heures”가 다른 가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Paillard는 déjà는 한 영역에서 실제로 구축된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선형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나타내어 주며, 이 때 한 가치에서 다른 가치로의 이동이 있다는 것을 déjà가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B 유형. (b) Téléphone-lui déjà.**

Paillard는 이 언술을 첫 번째 화자가 유명한 누군가와 만나기 어려워하고 있는 중에 그와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묻는 문맥에서 나타나는 언술로써 제시했다 : «Je ne sais vraiment pas comment faire pour lui parler de mon affaire. - 내 일에 관해 어떻게 그에게 이야기해야 할 지 정말 모르겠다.» 이 문맥에서 déjà가 쓰인 (b) 언술은 화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른 시도들을 배제하지 않고, 우선 혼란스러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첫 번째 시도(우선 전화부터 하는 것)를 선택하도록 한다.<sup>21)</sup> 따라서 이 언술에서 우리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의 첫 번째 단계로서 제시되는 «téléphone-lui»의 사행을 포착할 수 있다. Paillard는 이같은 해석이 déjà가 문미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밝히며, 명령형의 언술에서 déjà가 문두에 위치하느냐, 문미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효과가 각각 달라진다고 하였다. 다음의 문장을 비교해 보자.

21) Paillard에 따르면 이 언술을 Téléphone-lui와 비교하면, 단순한 Téléphone-lui라는 문장은 차후의 과정을 전제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형태라고 밝혔다. (D. Paillard(1992), p. 34.)

(b1) Déjà, calmez-vous.

(b2) Calmez-vous, déjà.

(b1) 언술처럼 déjà가 문두에 위치하면 언술행위주체는 공언술행위주체가 구축한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구축한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 유효화하고 있기 때문에 두 언술행위주체 간의 논쟁이 부각되어 보이는 반면, déjà가 문미에 오는 언술에서는 두 언술행위주체 간의 논쟁은 진정되어 보이고, 앞의 «Téléphone-lui déjà.»에서 강조했듯이 ‘진정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선택해야 한다는 가치를 찾아볼 수 있다. 결국 Paillard는 문미에 déjà가 위치하면 문두에 위치한 것보다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aller+inf.와 문미에 위치한 déjà는 함께 쓰일 수 없다고 지적한다.

?? Tu vas lui téléphoner, déjà.

Déjà, tu vas lui téléphoner.

두 번째 언술인 «Déjà, tu vas lui téléphoner.»에서 문두에 오는 déjà는 공언술행위주체가 구축한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언술행위주체 자신이 구축한 가치를 우선으로 유효화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J. J. Franckel도 «Je vais déjà lui téléphoner.»가 어법에 맞지 않는다고<sup>22)</sup> 설명했듯이 aller+inf.용법은 자신이 구축한 가치만을 시간선 상에서 유효화될 가치로 고려하기 때문에 문두에 오는 déjà와 aller+inf.용법은 함께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 언술처럼 문미에 오는 déjà와 aller+inf.는 어울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aller+inf.는 언술행위주체가 구축한 가치는 배제하고 자신의 가치를 우선하는 반면, 문미에 오는 déjà

22) Cf. J.J. Franckel(1989), p. 281.

는 공연술행위주체의 가치를 배제하지 않은 채로 첫 번째 단계만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이 B 유형에 대해서 Paillard는 영역의 불확정성에서 출발하여 이것에 가치를 구분하게끔 하는 지표 구축소가 있다고 하며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déjà의 위치에 대한 부분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 C 유형. (c) As-tu déjà mangé du caviar?

Paillard는 이 언술이 «경험의 과거» 가치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언술은 어떤 순간에 그 사행이 공연술행위주체에게도 유효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déjà는 «경험의 과거» 가치에 필수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만약 déjà를 없애면 이 «경험의 과거» 가치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사건은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해석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경우의 부정형이 ne...jamais가 된다고 Paillard는 밝히고 있다.<sup>23)</sup> «경험의 과거»를 나타내는 언술들은 특히 Raymond Devos<sup>24)</sup>의 촌극에서처럼 질문의 사행이 다른 언술행위주체에게 관계 속에서 이미 소개된 문맥 내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

(c1) Hier j'ai mangé un poussin. T'en as déjà mangé des poussin  
toi?

---

23) As-tu déjà fini ton travail? 같은 언술에서 déjà의 부정형은 ne pas encore라고 하였다. (D. Paillard(1992), p. 34.)

24) Raymond Devos (prononcer [døvos]) est un humoriste français, né le 9 novembre 1922 à Mouscron en Belgique, mort le 15 juin 2006 à Saint-Rémy-lès-Chevreuse dans les Yvelines (France). Il fut célèbre pour ses jeux de mots, ses qualités de mime, son goût pour les paradoxes cocasses, le non-sens et la quête de sens. (<http://fr.wikipedia.org/>에서 발췌)

(c1) 언술에서는 «moi»에 의해 검증된 관계(moi - avoir mangé un poussin)가 공언술행위주체와의 관계에서도 재작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Paillard는 이처럼 «경험의 과거»가 나타나는 언술들의 본질적인 특징은 서술 연산 관계에 대하여 작용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déjà를 통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처럼 Paillard는 A, B, C 유형을 통해 déjà가 인식(prise en compte)을 포착하여 déjà가 나타난 상황과는 다른 관계를 규칙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A, B, C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불변소를 이동(déplacement)이라 할 수 있는데, A 유형에서는 이 이동이 객관적으로 선행 구축된 가치에서 주관적으로 구축된 가치로 이루어지며, B 유형에서는 선택에 있어 사물의 상태에 관한 첫 번째 불한정 작용에서 사행 가치의 고정화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C 유형에서는 첫 번째 주체에게 유효했던 가치가 다른 주체에게도 유효하도록 재검토의 이동이 일어난다.

Paillard가 세운 déjà에 관한 가설은 «déjà는 서술 연산 관계의 부수적인 한정 작용이 아니라 서술 연산 관계의 구축 자체와 관계되고, 다른 관계를 알아차림으로써 두 번째 사실로서 고려되기도 한다.»인데 그는 다음과 같이 이 가설을 구체화 하였다. «관계의 구축에 관해서는 술어 관계가 미리 설정된 통사적 틀 안으로 저절로 “맞춰지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관계의 구축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연속적인 관계 맺음의 결과인 것이다. 이 관계 맺음은 문맥에 의해 한정될 수 있다. 따라서 déjà가 출현할 때 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note.7, p. 35) 이처럼 Paillard는 문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Paillard는 형태의 배열구조 상 déjà가 언술에서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

라 의미가 달라짐을 언급하기도 하였다.(pp. 36-37)

(d) Déjà, ton nom (on verra le reste ensuite)

(e) Ton nom, déjà?

(d)의 경우 déjà의 출현으로 언술행위주체는 상대방이 기대한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구축하여, “우선”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e)는 J. J. Franckel이 언급했던 «약화된 앎(le savoir dégénéré)»의 용법으로, Paillard는 이 유형의 의문문은 영역 내에서 가치의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가치가 더욱 강조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언술이 déjà가 언술의 내부에 위치한 것들이며 이는 대부분 한국어의 ‘이미’나 ‘벌써’에 해당하는 의미이다. Paillard는 déjà가 언술의 내부에 있을 때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달라짐을 보여주며 문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f) (...) quand je m’en aperçus il était trop tard : j’étais déjà au milieu de la foule.

‘j’étais’는 ‘au milieu de la foule’의 지표 구축소이고, ‘déjà’는 화자가 기대하거나 원했던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있음을 나타내어 준다.

(g) ?? C’est déjà moche, arrêtons-nous.

(h) C’est déjà assez moche comme ça, arrêton les dégâts.

한편 (g) 예문은 어색하고 (h) 예문은 자연스러운 이유를 Paillard는 다음과 같이 영역의 불확정과 가치의 고정화에 대해 설명하며 밝히고 있다. «être moche»는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술어로서 오로지 한 가치만을 가리키고 그 자체가 영역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반면에 «assez»라는 표지가 정도를 표현하므로 이 «assez»를 통해 한 영역과 한 가치를 지칭할 수 있게 되고, «ça»는 질적화되지 않은 사물의 상태를 제시하여 «assez moche»라는 가치가 사물의 상태에 연결되어 있는 첫 번째 구별된 가치로 구축되어, 영역의 불확정으로부터 가치 고정으로의 이동이 일어나 déjà가 나타나는 것이다. Paillard는 이 기능이 앞에서 본 C 유형의 «경험의 과거»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C 유형에서 보았던 (c1) 예문에서 언술행위주체 간에 일어난 관계의 재작용이 «첫 번째 주체에게 유효했던 관계로 볼 때 어떠한 순간이 그에 의해 두 번째 주체에게도 관계를 유효한 것으로 가치 고정화 했다.»와 같이 가치 고정화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Paillard는 déjà가 문두에 위치하는 언술로 다음의 예문을 제시했다.

- (i) Je me contentai de me frictionner le cou avec mon mouchoir parce que maintenant je sentais la sueur qui gouttait de mes cheveux sur ma nuque et c'était désagréable. Je renonçai d'ailleurs bientôt à me frictionner, c'était inutile : déjà mon mouchoir était bon à tordre et je suis toujours.
- (j) Il avait longtemps cru qu'il existait par hasard, à la dérive : mais c'était faute d'avoir réfléchi. Bien avant sa naissance sa

place était marquée au soleil. Déjà - bien avant, même, le mariage de son père - on l'attendait.

그는 이 예문들을 통해 문두에 위치한 déjà는 한 가치가 다른 가치로 이동한다는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문미에 déjà가 나타난 예문들로는 다음의 언술을 제시할 수 있다 :

(k) Où habitez-vous déjà?

(l) En voilà trois déjà.

(m) Ça fait longtemps déjà<sup>25)</sup>

Paillard는 문미에 위치한 déjà가 B 유형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그가 밝히는 A 유형과의 차이점은 A 유형에서 다른 가치는 보통 déjà의 우측에 나타나는 것에 반해, B 유형에서의 다른 가치는 지표가 그 가치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목적하는 것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할 “첫 번째” 가치를 구축하거나, 영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구분된 가치가 지표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상대적인 가치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Paillard는 문미의 déjà는 구축된 가치의 시각을 더욱 강조한다고 하였다.

또한 (k) 예문처럼 망각한 사실을 되묻는 의문문에서는 déjà가 문미에 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Paillard는 다음과 같이 부가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의문문은 절대로 영역 내에서 가치의 변화로 해석되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앞에서 B 유형의 기능을 영역의 불확

25) Jean-Pierre Ferland의 chanson 제목에서 인용.

정에 대한 지표의 인식이라고 하였듯이, 이 망각한 사실을 되묻는 의문문에서는 영역의 첫 번째 불확정에 안정성을 부여하는 것이 망각이며, 지표의 존재는 상대방에게 호소하는 질문의 목적으로 가치를 구분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Déjà가 나타나므로 의문문이 순수하고 단순한 무지로 해석되어질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앞에서 보았던 J. J. Franckel의 “약화된 앎의 내용” 기능과 상통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D. Paillard는 서술 연산 관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déjà를 연구하여 기존과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 즉 déjà가 서술 연산 관계의 구축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시제 차원은 유지하면서 déjà의 시간 부사 가치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 주었다 : «Déjà는 관계를 이동을 산출하는 것으로 제시하면서 déjà가 나타나는 언술의 구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가치를 바꾸거나(A 유형), 영역의 불확정함에서 가치를 판별하는 지표로 이동하면서(B 유형) 말이다. 이 이동의 본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 문맥»이다. 이처럼 déjà는 이 관계의 다른 점 - 주관적, 개념적, 시제적인 - 을 말하는 문맥을 통하여 관계의 현재(immédiat)를 말해주는 것이다.»(p. 37)

Paillard가 이 연구에서 택한 문제 제기 방식은 déjà 표지 연구의 새 장을 열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déjà의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복합 과거와의 결합관계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déjà에 관한 연구들도 déjà의 시제 용법 연구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J. J. Franckel과 D. Paillard가 보여준 déjà 연구에서 공통점을 찾는다면 déjà라는 표지가 도입한 다른 가치에 대한 인식을 찾아내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두 학자 모두 이 다른 가치의 출현 양상을 명시적으로 정리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의 IV장과 V장에서는 VU-Thi-Ngan의 논문<sup>26)</sup>에서 밝힌 이 다른 가치에 대한 출현 양상을 명시적으로 정리해보고,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에 대한 고찰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

26) VU-Thi-Ngan(1998), *Systématique des valeurs du passé composé en français contemporain.*, Thèse de Doctorat, Paris, Université Paris VII, pp. 298-329.

## IV. Déjà의 시제적 용법의 성격 규정

### 1. Déjà의 의미 가치 고찰

앞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J. J. Franckel이나 D. Paillard가 했던 연구에서는 같은 언술이라도 déjà가 문맥(contexte)에 따라 각기 다른 해석을 갖는다는 것<sup>27)</sup>을 알 수 있었다. 이 장에서 우리는 déjà가 쓰인 언술의 분석에서 해석의 다양성을 통해 그 기능의 규칙적인 점을 밝혀내고, 이 해석들을 걸러내는 매개 변수들을 규정지을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작업의 공통점 중 하나는 이 표지가 나타나는 언술 속에서 한 가치와 déjà에 의해 도입된 다른 가치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데 J. J. Franckel이나 D. Paillard의 분석에는 이 déjà에 의해 도입된 다른 가치가 나타나는 방법에 대한 분석이 명시적이지 않다. 따라서 VU-Thi-Ngan(1998)이 그의 논문 «Systématique des valeurs du passé composé en français contemporain»에서 밝힌 다음 세 유형의 언술을 통해 déjà가 출현소 p<sup>28)</sup>를 다른 출현소와의 관계에서 도입하고, 그 다른 출현소가 나타나는 문맥의 양상은 각기 다르다는

---

27) D. Paillard(1992) p. 33에 따르면 언술은 문맥에 따라 아주 명백히 다른 해석들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Tu as déjà lavé la vaisselle.» 라는 언술로 예를 들었다 :

- a. 놀람 : «예상보다 훨씬 빨리 했다.»
- b. «행해진 것»과 «행해야 할 것»의 대립 : “아니면, 내가 설거지를 해야 하니?”
- c. 획득(경험) : «그 정도로 나쁘지 않은 것(그럭저럭 잘 했다.)/여기 좋은 결과가 있다.  
(꽤 잘했다.)»
- d. 첫 단계 : « pouvoir la ranger하기 전에 avoir lavé la vaisselle부터 행한 것»
- e. 경험의 과거 : “너는 일생동안 단 한 번이라도 설거지해 본 일이 있니?”

28) VU-Thi-Ngan은 «가치 p»라 명명하였으므로 본고에서도 이를 따랐다.

점을 살펴볼 것이다. IV, V장에서 차용된 예문들은 특별히 출처를 표기 하지 않은 것은 VU-Thi-Ngan(1998)의 논문에서 인용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 a. C'est déjà toi? (Tu es là plus tôt que je le pensais)
- b. - Paul, va faire ton devoir!  
- Mais je l'ai déjà fait, maman. (plus à faire)
- c. Et quel tintouin, ces déménagements ...Sans compter que les souris suivraient peut-être, comme elles l'avaient déjà fait. (passé d'expérience)

그는 déjà가 나타내는 가치(p')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 짓고 있다.

- 1.1.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

VU-Thi-Ngan은 déjà가 나타내고 있는 다른 가치(p'이라 명명)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déjà 용법의 특징이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

- (1) - J'arrive en bolide, un coup d'épaule et je balance mon carton sur le sofa.  
Il me regarde, ahuri :  
- C'est déjà toi?  
- Oui, et maintenant vise!

이 문맥에서 «C'est déjà toi?»라는 언술은 So가 언술 행위 순간에 So'이 그렇게 빨리 도착하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나타낸다. 즉 So가 기대한 것은 «pas encore son arrivée/autre que son arrivée - 그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며, 실제로 일어난 가치인 «son arrivé - 그가 도착한 것»과는 다른 가치의 인식(prise en compte)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déjà가 나타내는 것은 이 다른 가치 p'의 «인식(prise en compte)»이다.

VU-Thi-Ngan은 또 다음의 (2), (3) 문장을 비교하였다.

(2) - C'est toi?

Déjà가 없는 이 문장은 단지 상대방인 So'이 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써 다른 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예문 (1)에서 déjà는 «tu es là»를 뜻하는 «c'est toi»가 사행 P를 실현시키는 가치로서 나타나게 한다. 즉 déjà는 실제로 일어난 것과는 다른 가치가 작용(mise en jeu)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치 p는 이타성의 관계에서 다른 가치 p'을 허용하며, 이 다른 가치가 나타나는 양상은 déj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이 다른 가치의 작용이 있게 하는 것은 바로 déjà이다. VU-Thi-Ngan은 p와 p'의 이타성의 관계가 (1)의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나타난 너»라는 놀라움의 효과를 만든다고 하였다.

이러한 놀라움의 효과는 다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3) - MONSIEUR LEGENDRE : Il est temps de partir, Claire!

- CLAIRE ET DAVID (ensemble) : Déjà!<sup>29)</sup>

---

29) LA MAISON VIDE, d'après le scénario de Didier Cohen, 1997.

여기서 déjà는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나타낸다. 한 가지는 객관적인 관점으로서의 시간이고, 또 한 가지는 주관적 관점인 «떠날 시간»인데, 이 주관적 관점은 So가 예상한 가치가 아니었다. Déjà는 p가 기대했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p'이 문맥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p는 p'이라는 다른 가치와 이타성의 관계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VU-Thi-Ngan은 (1)과 (3) 같은 언술에서처럼 선형적인 가치가 아닌 p를 통해서 p'이 존재함을 인식하는 것을 «p가 p'을 진동시킨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결국 선형적인 가치가 아닌 p를 통해 p'의 진동이 있으며, p'은 독립적인 지위를 갖지 않고, p'이 나타나는 방식은 p를 첫 번째 가치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déjà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 장에서 언급하였던 J. J. Franckel의 약화된 앎의 내용이나 D. Paillard의 망각에 대한 déjà의 기능을 VU-Thi-Ngan은 p'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

(4) - Non, un peu d'eau. Où est la salle de bain, déjà?

- Olivier, accompagne Mme Inguibert.

이런 유형의 의문문에서 déjà를 없애 보면 의미의 차이를 단번에 느낄 수 있다고 하며 (5) 예문과 비교하였다 :

(5) - Où est la salle de bain?

(5)에서는 언술행위주체가 단순히 «salle de bain»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공연술행위주체에게 질문을 던진 상황이다.

한편 (4)와 같은 연술은 déjà가 쓰였으므로 이전에는 «salle de bain»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Déjà가 내포하고 있는 다른 가치(p')의 인식이 첫 번째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가치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p'인 첫 번째 가치에 비해 내가 «salle de bain»의 위치를 모른다는 것이 처음이 아님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déjà인 것이다. 따라서 p'은 déjà와 분리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연술 (4)는 déjà가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망각(oubli)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의 영역이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질문은 이 영역의 내부에서 던져진 것이기 때문이다. VU-Thi-Ngan은 또 P의 존재, 즉 구축된 영역의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는 déjà가 쓰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6) - ?? Est-ce que tu la connais, déjà?

이 연술은 공연술행위주체가 언급한 내용에 대해 «이미 그 사실을(혹은 그녀를) 알고 있었느냐?»라는 확인의 질문인데, 만약 확인이 아닌 최초로 구축된 무지라면 질문은 다른 가치 p'에 대한 인식 없이, 즉 déjà 없이 쓰였을 것이다.(예문 (5) 참고) 단순한 정보의 요구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4)에서 P를 실현시키는 p의 가치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déjà가 나타내고 있다. 즉 p의 가치가 déjà와 분리될 수 없는 p'과 함께 이타성의 관계에 있을 때만 déjà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VU-Thi-Ngan은 이러한 종류의 연술에 «움직임(bougé)»의 효과가 부여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구축하는 가치가 선형적으로 p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인다는 것이다. 우리

에게 있어 p는 처음 일어난 일이 아니며, 우리가 가진 가치는 «위치 변화 (changement de place)»의 결과라는 것이다. 이는 Paillard의 «이동 (déplacement)»의 개념과 상응한다.

예문 (2)와 (5)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종류의 언술에서 déjà를 없애보면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로도 déjà가 p의 해석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p와 p'은 서로 서로 이타성의 관계에서 도입되고, p'은 déjà와의 관계에서만 존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실로 VU-Thi-Ngan이 나눈 첫 번째 그룹은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특징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2.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이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p는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한다.

VU-Thi-Ngan은 다음의 언술을 제시하면서 déjà에 의해 도입된 가치가 원래 가치가 나타나는 양상과 같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

(7) - Excusez-moi, je peux prendre cette place?

- Désolé, elle est déjà prise.

이 언술에서 So는 «prendre la place - 자리를 잡는 것»을 목표된 것(P)으로 간주한다. 이 목표된 p(p')는 déjà에 의해 도입된 가치 «la place est prise - 자리는 잡혔다»와는 상관없이 별개로 존재한다. 또한 déjà가 나타났으므로 이 목표된 p(p')와는 다른 영역에서 P(prendre la place)를 실현시키는 실행된 p(p

effectué)를 도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행된 p(이미 잡힌 자리)와 목표된 p인 p'(자리를 잡고자 한 것)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

VU-Thi-Ngan은 (7)의 예문에서 So에게 P를 선협적으로 실현시키는 목표된 p와 실행된 p사이에서 «분리(dissociation)»가 나타나며, 또한 이 분리가 두 주체, 언술행위주체와 공언술행위주체 간에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Déjà는 P(prendre la place)를 실현시키는 실행된 p를 목표된 p와는 다른 것으로 도입한다. 그리하여 실행된 p와 p'(목표된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7)의 예문은 «앞으려고 했던 자리는 이미 차지되었으므로 더 이상 취할 수 없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즉 이는 «너에게 있어 목표된 p는 더 이상 유효한 범위에 있지 않으므로, 기다려 봤자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해석된다.

그는 또한 P의 실현에 대해서 p가 p'의 관여성(pertinence)<sup>30</sup>에 이유를 제기하는 점에서 실행된 p에 의한 목표된 p(p')의 «재구성» 또한 존재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지시치가 «이미 실현된 것은 더 이상 실현될 것이 없다.»인 것이다.

VU-Thi-Ngan은 이 지시치가 P의 실현에 대한 «불일치(discordance)»가 존재하는 문맥 내에서 관찰된다고 한다. 따라서 p'(목표된 p)은 문맥 내에서 자율적인 존재 양상을 가지며 déjà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8) - Paul, va faire ton devoir!

- Mais je l'ai déjà fait maman!

VU-Thi-Ngan은 목표된 p와 실행된 p사이에 «불일치»가 있을 때에만 déj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히며 (8)의 예문을 제시했다. 예문 (8)에서는 목표된 p가 «

---

30) Cf. 이성재(1999), "관여성 이론과 화용론", 한국프랑스학회, 한국프랑스학회 1999년도 추계학술 발표회, pp. 39-52.

아직 숙제를 하지 않았을 것이란 전제 하에 숙제를 하라는 것»이며, 실행된 p는 공언술행위주체의 기대와는 달리 «이미 숙제를 했기 때문에» p와 p'의 불일치가 나타난 것이다. 이와 달리 목표된 p와 실행된 p가 일치하는 문맥 내에서는 déjà가 나타나지 않는다.

(9) - Paul, tu as fait ton devoir?

- Oui, c'est fait, maman.

(9)에서는 질문 내에 공언술주체가 목표한 것이 없다. 따라서 이것으로 우리는 déjà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이 déjà가 목표된 영역과 실행된 영역 사이의 불일치를 나타내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불일치는 뚜렷이 구분되는 각각의 두 주체간의 관계에서 목표된 p와 실행된 p사이의 분리를 뜻한다. 다시 말하면 P의 실현에 대해 같은 «관점»을 갖지 않는 문맥들에서, 즉 이타성이 있을 때 déjà는 반드시 나타난다.

(10) - Vous énervez pas, Madame. Tout ce que vous allez pouvoir dire, je l'sais. Mon lieutenant m'a déjà expliqué.

- Vot'e lieutenant!

예문 (10)에서는 So'(Madame)과 관계있는 목표된 p(p' = madame이 어떠한 사실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가 이미 행해진 사실들 속에서 실행된 p(부관이 이미 설명한 것)에 의해 «이유 제기»된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유 제기되었다.»라는 표현은 다음과 같은 (10)번 예문의 해석이 보여주듯이 관점의 «불일치»에 문제 제기를 한다는 것이다 : «P가 더 이상 유효화 시켜야 할 것이 아니라면 당신

이 P를 유효하게 하려는 시도는 소용없다.» 이 해석은 실행된 p가 더 이상 목표된 영역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목표된 p에 이유 제기를 하는 déjà가 나타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déjà를 나타나게 하는 관점의 «불일치»는 p'(목표된 p)에서 p(실행된 p)로의 이동으로써 형성되는데 p(실행된 p)가 P를 실현시킨 것일 때, 목표된 p는 더 이상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

VU-Thi-Ngan은 이러한 언술들의 유형에서 p'은 déjà와는 상관없이, 문맥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 P를 선택적으로 실현시키는 것은 p'이지만, 실제로 P를 시간 속에서 실현시키는 가치는 p라는 것을 déjà가 나타낸다. VU-Thi-Ngan은 이를 시간 밖에서의 p'(목표된 p)으로부터 시간 안에서의 p(실행된 p)로의 이동으로 보았다. 실행된 p가 시간 속에서 P를 실현시킨다고 할 때, p'(목표된 p)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즉 p'은 취소되어 버린다. 이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의미의 효과에 대해서 VU-Thi-Ngan은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이를 본 논문의 V장에서 살펴볼 것이다.

### 1.3.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p'은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p는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하지 않는다.

VU-Thi-Ngan은 앞선 언술들에서 시간 속에서 P를 실현시킨 p에 대한 인식이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한다고 보았는데, 이제부터 살펴볼 언술들에서는 p'의 자율성(autonomie)과 가시성(visibilit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1) - Je lis : «Mon cher Jean, je reçois un mot de Marcel. Papa, qui avait déjà eu deux crises d'urémie, la première il y a six

mois, la seconde quelques jours après ton mariage, est cette fois au plus mal...»

예문 (11)의 문맥을 통해 짐작해 볼 때, 아버지는 이미 세 번의 고비를 넘겼고 To에서 일어난 세 번째 고비가 전의 두 번에 비해 가장 심각함을 알 수 있다.(cf. Papa est cette fois au plus mal.) 아버지의 상태(p)에 관해서는, 그것을 실현시키는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 To에서 실현시키는 p'(세 번째 일어난 고비)과 과거에서 To의 외부에서 p를 실현시키는 가치(전의 두 번)이다. 이 언술에서 p'은 문맥 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위에서 살펴본 (7), (8), (10) 언술들과는 달리, (11)에서는 p를 인식하는 것이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를 하지 않는다. 또 여기서 déjà는 To보다 앞서는 시점인 tk에서 P를 실현하는 p를 적절히 배치하는 역할을 한다. To에서와 tk에서 P의 실현은 각각 «가시성(visibilité)»을 갖는다고 VU-Thi-Ngan은 밝히고 있다. To에서 P를 실현시킨 것은 p'이고, tk에서 P를 실현시킨 것은 p인 것이다. 이는 p와 p' 사이에 대조점은 존재하지만 p'이 제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VU-Thi-Ngan은 이것이 예문 (11)에 «경험의 과거(passé d'expérience)»의 가치를 부여한다고 하였다. 이 가치에 대해서도 V장,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VU-Thi-Ngan은 또한 C. Fuchs(1985)의 연구에서 그가 언급했던 déjà의 시상 범주(aspectuo-temporels)와 양태 용법간의 경계(cas-frontière)에 대해 살펴 보았다.

(12) - Je passe déjà un coup de fil avant de dépouiller le courrier.

예문 (12)는 언술행위주체가 긴 공백 후에 돌아와서 할 일이 많은 상태이다. 그런 상황에서 테이블 위의 편지를 보고 전화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예문 (12)를 해석하면 «Je passe déjà un coup de fil avant de dépouiller le courrier. - 나는 편지를 뜯기 전에 우선 전화부터 한다.»가 되는데, 이는 «많은 일들이 산재된 상황에서 나는 우선 p(donner un coup de fil)부터 행하고 다음에 q(dépouiller le courrier)를 행한다.»를 뜻한다. VU-Thi-Ngan은 이 해석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라 보았다.

- a. p는 P를 선형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치가 아니다. (여기서 P는 해야 할 일들의 총체를 말한다.)
- b. «avant»에 의해 지정된 p-q 영역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순서는 아니다.

«donner un coup de fil - 전화하는 것»은 «dépouiller le courrier - 편지를 뜯는 것»과 경쟁하는 동작, 즉 p(donner un coup de fil)는 q(dépouiller le courrier)와 대조되는 동작이지 단순한 연속 동작이 아니다.

Déjà가 있기 때문에 p는 문맥에서 주어진 q와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과 p/q 연속적 영역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Déjà라는 표지가 p와 q를 이타성의 관계에 놓이게 하며 두 동작을 경쟁하는 관계로 만드는 것이다. 만약 déjà를 없애 보면 p와 q의 경쟁 효과는 사라지게 되므로 두 관계는 경쟁 관계가 아닌 단순히 «avant»에 의해 지정된 p/q의 연속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해석은 «Je passe un coup de fil avant de dépouiller le courrier. - 나는 편지를 뜯기 전에 전화를 한다.»가 된다.

또한 VU-Thi-Ngan은 예문 (12)에서 P가 실현되는 두 가지 형태 사이에 경쟁이 존재한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déjà에 의해 도입된 p에 의한 형태이고, 다른 한 가지는 문맥 안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갖는 q에 의한 형태이다. 즉 각각의 실현은 모두 가시성과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D. Paillard(1992)가 déjà의 어원을 «즉각성(immédiateté)의 개념과 함께 시간성의 형태를 가리키는(언술 행위의 현재를 기준으로)»<sup>31)</sup>이라고 강조했듯이 어원학적으로<sup>32)</sup> déjà는 시제의 차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문 (12)에서 p는 q를 행하기 전에 «tout de suite - 곧바로» 행해야 할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우리는 déjà를 «d'abord - 우선»으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떠올릴 수도 있겠다. 하지만 déjà 대신 d'abord를 쓴다면 p와 q는 déjà가 존재할 때 일어나는 이타성의 관계에 놓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속 관계에 놓이게 될 뿐이다.

VU-Thi-Ngan은 J. J. Franckel(1989)과 D. Paillard(1992)의 «Téléphone-lui déjà.» 언술 분석 연구를 통해 예문 (12)의 언술에 나타난 déjà의 용법이 명령법과 함께 잘 나타난다고 하였다.

(13) - J'ai à parler au directeur de mon affaire. Je vais maintenant  
à son bureau, mais je ne sais pas s'il peut me recevoir.  
- Téléphone-lui déjà.

이 언술에서 So'이 행하는 p'(aller au bureau - 사무실로 가는 것)은 P(rencontrer le directeur - 팀장을 만나는 것)를 선행적으로 실현시키고, So는 P

---

31) D. Paillard(1992), p. 37.

32) Watburg 프랑스 어원 사전 : Déjà, dès와 ja의 합성어, 13세기에는 ja 안에 «déjà»의 의미는 없었고, «tout de suite»의 의미가 있었다. 라틴어 jam이 현재형과 미래형 동사와 함께 déjà의 뜻을 지녔다. p.183. (D. Paillard(1992), p. 37, 각주 No.15 재인용)

를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로써 p(téléphoner - 전화하는 것)를 택한다. VU-Thi-Ngan은 p'과 p사이에 차이(décalage)가 존재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예문 (13)에서 p를 선택하는 것이 p'의 유효성을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P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즉 directeur를 만나기 위해서는 p - p'을 해야 하는데 이를 VU-Thi-Ngan은 “각각의 P의 실현은 서로 대조적이지만 모순되지 않는 이중의 가시성(double visibilité)을 지닌다.”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언술에서 déjà는 선행적으로 P를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p')에 비해 «직접적으로 유효화 하는» p 가치를 도입한다는 것을 뜻한다.

VU-Thi-Ngan은 이처럼 일련의 언술들에서 선행적으로 P를 실현시키는 p'과 p의 개념체 영역을 실현시키는 déjà에 의해 도입된 가치 사이에는 차이(décalage)가 존재 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p와 p'의 차이를 p/p' 이타성의 관계로 공식화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언술들에서는 p'이 déjà와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났다. 그는 p'을 선행적으로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인식했지만, 또한 p'의 유효성에 이유가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전제는 하지 않았다. P를 실현시키는 두 가치의 공존 현상을 찾아낸 것이다. 그리고 이 가치의 실현들은 각각 가시성도 지니고 있다.

위에서 살펴 본 déjà가 나타난 언술들로 VU-Thi-Ngan은 이 표지가 항상 p/p' 가치의 «불일치(discordance)»가 존재하는 문맥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 또 두 관점이나 두 가치들 사이의 «차이»가 존재하는 문맥 속에 나타난다는 것을 밝혔다. 이 불일치나 차이가 곧 이타성의 관계를 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déjà라는 표지로 인해 나타난 가치는 다른 가치와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며, 이 가치가 나타나는 양상은 문맥에 따라 아주 가변성이 크다고 함으로써 문

맥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 2. Déjà의 시제적 용법에 대한 가설

Déjà가 나타난 언술들의 검토에서 밝혀진 규칙성들로부터 VU-Thi-Ngan은 déjà라는 표지의 시제적 용법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Déjà는 시간 속에서 P를 실현시키는 가치 p가 선행적으로 P를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 p'과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Déjà가 쓰인 여러 언술들에서 살펴보았듯이 déjà는 p와 p'이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런데 이 p'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그 나타나는 방법 또한 문맥에 드러나 있다. 이 p'이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VU-Thi-Ngan은 déjà의 용법을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 A. 그룹 A

p는 p'과 이타성의 관계에 있고, p'의 인식은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 p'은 déjà가 나타나는 언술에서는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양상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용법을 찾아볼 수 있는 예문들로서는

- C'est déjà toi?

- Oh, c'est déjà l'heure!
- Où est la salle de bain, déjà?

### B. 그룹 B

p'은 문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양상을 갖는다. P가 실현됨으로써 p를 인식하는 것은 p'의 유효성에 이유를 제기한다.

- La place est déjà prise.
- Ne t'en fais pas, j'ai déjà fait la réservation.
- Voulez-vous dîner avec nous?
- Merci, j'ai déjà mangé.

### C. 그룹 C

p'은 문맥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양상을 갖는다. P를 실현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p를 인식하는 것은 p'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p와 p'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지만 이 가치들은 각각의 가시성(visibilité)을 갖는다.

- Papa, qui avait déjà eu deux crises d'urémie (...), est cette fois au plus mal.
- Je passe déjà un coup de fil avant de fouiller le courrier.
- Téléphone-lui déjà.

VU-Thi-Ngan은 또한 그가 설정한 déjà라는 표지의 시제적 용법에 관한 가설로부터 구분한 이 세 그룹을 복합 과거와의 결합으로 살펴보았는데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 V.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

J. J. Franckel은 déjà의 «경험의 과거(paassé d'expérience)»의 가치에 대해 설명하며 복합 과거의 두 가지 용법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에 따르면, 복합 과거는 우선 «결과로서의 상태(état résultant)»를 나타낸다. «Tu es allé à Besançon?»이라는 언술이 «Tu as l'air euphorique!»라는 문장과 함께 쓰여 진다면 «결과로서의 상태»는 더욱 분명해 진다고 설명하며, «Tu as l'air euphorique!»가 앞 문장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 기능함으로써 언술행위주체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Tu es allé à Besançon»이라는 개념체 영역의 내부가 사실이라는 것과, 이 두 개의 언술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의해 «Tu es allé à Besançon?»이 사행의 개념적인 구조화에서 내부의 중심으로 확립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이는 완료(accompli)<sup>33)</sup>의 개념을 나타내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복합 과거가 단지 어떤 한 사건이 시·공간에 위치한 과거의 지나간 사건을 나타내는 '아오리스뜨(aoriste)<sup>34)</sup> 용법', 즉 주어진 시간(t)에서 사행 P의 단

---

33) 복합 과거의 대표적인 시상인 '완료(accompli)'는 주관적으로 설정된 그 어떤 것과 일치됨으로써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주관성이 개입되어 나타나는 복합 과거의 완료상은 세 가지로 구분 되어진다.

- 하나의 기준(étalon)과 동일화 작용(identification)에 의하여 완료가 나타나는 경우
- 행해진 것(le fait)과 행해질 것(le à faire) 간의 일치(conformité)에 의한 완료
- 추론 관계(relation d'inférence)에 의한 완료상

34) Benveniste는 담화(discours)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과거 시제를 복합 과거로 보았고, 이야기(récit)에서 사용되는 단순 과거는 과거의 시간선 상에서 사건 스스로가 서술하는, 즉 현재와의 단절(rupture)된 시제로 보아 이에 '아오리스뜨'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A. Culioli는 단순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와의 단절을 나타내는 시제를 '아오리스뜨'라 명명하였다. 이처럼

순한 위치 결정 작용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처럼 복합 과거는 완료의 개념과 단순히 과거를 가리키는 아오리스뜨 개념의 이중의 자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 과거의 가치는 문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문맥이 없이는 복합 과거가 완료의 개념으로 쓰인 것인지, 아오리스뜨 용법으로 쓰인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 과거가 갖는 시제적 특징이 déjà라는 표지의 기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복합 과거와 déjà라는 표지의 결합에 대한 VU-Thi-Ngan의 가설을 통해 문맥 내에서 p/p'의 가치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는 IV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déjà의 용법에 따라 복합 과거와 déjà의 결합을 구분하였다.

### 1. 그룹 A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에서 p(ti)의 구축은 p'(to)의 잠재성을 움직이게 한다.

(14) - Zut! Le train est déjà parti?!

이 문장에서 So에 의해 표현된 놀람은 기차가 떠나버린 사실을 전혀 예상치 못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p'(le train n'est pas parti - 기차가 떠나지 않은 것)은 실행된 p(le train est parti - 기차가 떠난 것)에 대해 선행적이지 않다. 즉 p(ti)는 기대된 가치가 아닌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가치를 구축해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p(ti)가 첫 번째 가치(기대하고 있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들로 déjà는 p(ti)와 다른 가치 p'이 이타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예문 (14)를 해석하면

---

담화에서 현재와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지나간 과거의 한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을 서술하는 것에 그치는 시제를 'aoriste de discours'라 한다.

«Je ne m'attendais pas à ce que le train soit parti. - 나는 기차가 떠났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가 된다. p'(to)이 인식되는 것은 p가 인식된 그 순간부터인 것이다. Déjà에 의해서 P가 실현되는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p를 도입할 때 비로소 p'도 나타나기 때문에 p'(to)은 문맥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VU-Thi-Ngan은 이 현상을 p(ti)는 p'의 «잠재성(virtualité)»을 «움직이게(vibrer) 한다.»라고 표현했다. 다시 말하면, déjà는 p(ti)가 첫 번째 가치가 아닌 것으로 소개하면서 작용이 되고 있는 다른 가치, 즉 p'(to)이 있다는 것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한 p(ti)를 통해서만 P를 ti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p(ti)는 따라서 p'(to)과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 이 이타성의 관계로 예문 (14)에서 볼 수 있는 «plus tôt qu'on ne le pensait - 생각한 것보다 빨리, 먼저»의 효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So의 놀람을 표현하게 한 것이다.

VU-Thi-Ngan은 déjà를 없애면 이러한 의미 효과가 사라진다고 하였다 :

(15) - Le train est parti?

예문 (15)는 P(partir - 기차가 떠난 것)가 시간 속에서 실현이 되었는지를 알아보고 단순히 확인하는 단순 의문문으로써 해석된다. 질문은 P의 존재 자체에 기인하고 다른 가치의 인식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곧 p'이 나타나는 양상이 déjà 밖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p'의 인식은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Déjà와 함께 쓰인 예문 (14)는 P가 시간 속에서 실현된 것을 나타내는 p를 갖는 것에 대한 놀라움으로 해석되어 감탄문에 가깝게 해석된다고 하였는데 VU-Thi-Ngan은 이것이 «움직임(bougé)»의 효과를 가져다준다고 하였다. 이 움

직임의 효과라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가치가 기대했던 가치가 아닌 것에서 기인하게 된 것이다. 이 움직임의 효과는 III장에서 살펴보았던 D. Paillard의 A 유형에서의 가치의 이동(déplacement)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VU-Thi-Ngan은 예문 (14)에서 놀라움의 효과는 p/p' 이타성에 속하며, 이 이타성은 déjà에 의해 첫 가치가 아닌 것처럼 도입된 p(ti)로부터 자리 잡는다고 하였다. 이 이타성이 p'의 «잠재성»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VU-Thi-Ngan은 이러한 déjà의 기능을 다음의 문맥 속에서도 찾아내었다 :

(16) - Tu es l'Homme et tu m'apparais avec le visage de tous les hommes à la fois. Tu ne nous as jamais dévisagés et déjà tu nous as reconnus. Tu es le frère bien aimé.

(17) - Le soldat fonce sur moi et je lève le coude pour me protéger le visage, mais il ne frappe pas, il tourne le loquet de la porte et je tourbillonne encore dans la pièce, alors qu'il a déjà refermé derrière moi.

예문 (16)에서 두 사건 사이에 다음과 같은 추론 관계가 주어진다 : o ⇒ p / o' ⇒ p'

우리는 o'(ne jamais dévisager - 결코 쳐다보지 않았던 것)과 관계가 있는 p(reconnaître - 알아보는 것)를 가지게 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Déjà가 개념적인 면에서 p와 관계가 없던 o'을 p(ti)와 관계 맺도록 한 것이다. 이는 o'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첫 번째 가치가  $p$ 가 아님을 나타낸다. 따라서  $p(ti)$ 는 다른 가치와 이타성의 관계에서 도입되는데, 이 다른 가치가 나타나는 양상은 déjà가  $o'$ 과의 추론 관계에서 첫 번째 가치가 아닌 것으로  $p(ti)$ 를 도입시킬 때만 고려된다. 즉 선형적으로  $p'$ 이  $o'$ 과 추론 관계에 있고,  $o'$ 의 시제적 공간 내에서  $p(ti)$ 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p(ti)$ 가  $o'$ 의 시제적 공간에서 구축된다면, 이  $p(ti)$ 의 구축은 이르게 이뤄진다. 따라서  $o'$ 과  $p(ti)$ 의 관계는 추론 관계가 아닌 대립 관계로써 해석된다.

예문 (16)과 달리 예문 (17)에서는 두 사건  $o$ (Je tourbillonne encore dans la pièce - 또 다시 방안을 맴도는 것)와  $p$ (Il a déjà refermé derrière moi - 문을 이미 다시 닫은 것)는 그 자체로는 어떤 개념적 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다. 그들의 관계는 오로지 시간 속에서 연속의 관계로만 이뤄진다. «je tourbillonne encore»에서 encore는 «반복의 가치»를 가지며 이는  $o$ 가  $To$ 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o$ 와의 관계에서  $p$ (refermer la porte)를 도입하면서 déjà는  $o$ 의 시제적 공간 내에서  $p$ 를 구축하는데 이것은  $p(ti)$ 가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만약 두 사건 사이의 연속 관계를 대조해보면  $o$ 의 시제적 공간은 선형적으로  $p$ 와 상응하지 않는데, 이는  $o$ 와의 관계에 우선적으로 존재하는 다른 가치의 인식이 있음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o$ 와의 연속 관계 내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가치인 다른 가치  $p'$ 과  $p(ti)$ 는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는  $p$ 와  $p'$ 이 이타성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p/p'$  이타성은 시제적 공간에서 déjà에 의해  $p(ti)$ 가 구축된다는 사실로 이뤄진다. 이 이르게 이뤄진 구축이 시간 속에서  $o$ 와  $p$  사이의 관계를 연속의 개념이 아닌 대립의 개념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통사적 구조 내에서 déjà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데, 이 통사적 구조는 o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가치를 가지지 않는 p(ti)의 도입이 o와 p를 대립 관계에 놓이게 한다.

위에서 살펴본 두 예문에서는 p(ti)와 p'(to)간의 이타성이 두 사건 사이에서의 관계(추론 관계나 연속 관계)를 나타내는 P로부터 수립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관계가 주어짐으로써 p(ti)는 P를 선형적으로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와 이타성의 관계에 있게 된다. o와 p 사이를 대립 관계로 해석되게 하는 것은 이타성의 관계 때문인 것이다.

다음의 예문에서 VU-Thi-Ngan은 p(ti)/p'(to) 이타성이 상호 주관적 작용과 관계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18) - Je cherche Paul.

- Il est déjà parti.

그는 예문 (18)에서 p'(ne pas être là - 거기에 없는 것)의 «진동(vibration)»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Je cherche Paul.»이라는 언술만 볼 때 우리는 Paul의 존재 여부(P)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Je cherche Paul.»이라고 발화하는 순간에 So'는 그가 있는지 없는지를 명시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다. So의 대답에서는 So'의 질문을 P를 선형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치의 «진동»으로써 받아들이며, So는 So'이 기대할 수 있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로 p(ti)를 개입시킨다. Déjà와 함께 쓰인 대답의 문장은 «Paul n'est pas là plus tôt que ce que tu pouvais penser. - Paul은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없었다.»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

이처럼 déjà가 함께 쓰이면 단순한 부정문의 대답이 아니게 된다. P를 실현시키는 가치를 «진동»으로 고려하는 공연술행위주체와의 관계에서 나(연술행위주체)는 P를 실현시키는 다른 가치 p'을 제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진 가치가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 déjà에 의해 도입된 가치가 선행(先行)의 효과를 갖는다고 VU-Thi-Ngan은 말하고 있다.

이 VU-Thi-Ngan의 그룹 A 연술 분석은 déjà가 p(ti)를 문맥 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p'(to)과 이타성의 관계에 놓이도록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p(ti)의 구축은 p'(to)의 잠재성(virtualité)을 드러나게 하고 이를 VU-Thi-Ngan은 “p(ti)의 구축은 p'(to)의 잠재성(virtualité)을 «진동 시킨다.»”라고 표현하였다. 따라서 p'이 존재하는 양상은 déjà와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p(ti)/p'(to) 이타성은 균형이 p(ti)에 놓이느냐(예문 (14)), P에 놓이느냐(예문 (16), (17)), 아니면 p(ti)와 p'(to)의 «진동»에 동시에 놓이느냐(예문 (18))에 따라 다양한 의미의 효과를 생산한다.

마지막으로 그룹 A 연술들의 성격을 규정지어 보면, P의 실현을 위해 déjà에 의한 p(ti)의 구축이 첫 번째가 아니라, P를 실현하는 것이 연술에 «움직임(bougé)»의 효과를 준다는 사실로써 특징지을 수 있겠다. 따라서 이 그룹 A의 공통적인 해석은 «plus tôt qu'on ne le pensait -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미리(먼저)»이다.

## 2. 그룹 B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에서 p(ti)는 p'(to)을 제거한다.

VU-Thi-Ngan은 déjà가 나타나면 p(ti)를 인식하는 것이 p'(to)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였다.

그룹 A의 언술들과는 달리 그룹 B의 언술들에서는 p'(to)이 언술행위주체가 목표로 하는 사행이다. 따라서 p'(to)은 déjà와 상관없이, 문맥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며, 나타나는 방법 또한 무척 다양하다고 하였다.

(19) - Quand je lui parlai d'auto, et que je lui proposai une des plus grandes marques américaines, je vis un homme à l'agonie. «Rien ne vous troublera plus, ajoutai-je, l'acte d'achat sera signé par vous. J'ai déjà mis de côté, pour les remettre dès lundi, un certain nombre d'obligations qui vous assurent une certaine de mille francs de rente. Avec cela, vous pourrez voir venir.»

예문 (19)는 대화자 간에 어떠한 위험한 협상에 관한 대화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언술행위주체(So)가 그의 공언술언술행위주체(So')에게 큰 행운을 보장(P)하고 있다. 즉 So가 P를 약속하는 언술이다. So의 공언술행위주체 So'는 이 약속의 실현에 대해 약간의 의심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p'은 이 문맥 내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갖고 있다. So'의 의심을 품은 태도 때문에 So는 P를 선협적으로 실현시키는 가치 p를 구축하고, p는 So'가 고려하고 있는 범위에 남아 있다. p'(고려된 p)는 So'을 위해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인식되고, So는 déjà와 함께 시간 속에서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p를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p(ti)의 구축은 p'(So'를 위해 고려된 p)

으로부터 실행된 p로의 이동과 상응한다.

p'(고려된 p)은 To에 위치하고, p(실행된 p)는 ti에 위치하므로 p'/p 이타성은 시간면 위에서 to/ti 이타성으로 나타난다. 이 이타성의 관계는 실행된 p(p(ti))로부터 자리 잡는다. To에 앞선 순간에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의 p(ti)는 p'(고려된 p)에 이유를 제기한다. p'은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맥 내에서 보여지는 «Rassure-toi»를 VU-Thi-Ngan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당신은 걱정할 이유가 없다. 행해졌어야 할 것들은 행해졌다.(ce qui devrait être fait est fait.)»

VU-Thi-Ngan은 아래와 같은 언술의 p/p' 이타성의 관계는 언술행위주체 중 한 명에 의해 p'(목표된 p)으로부터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20) - Voudriez-vous sonner encore?

- J'ai déjà sonné trois fois.

So'은 To에서 déjà와는 상관없이 «sonner - 초인종을 울리는 것»이라는 다른 출현소를 목표로 하는데, 이것을 p'(to)으로 표기할 수 있다. 한편 So'은 p'(to)을 목표로 하여 구축하는 반면, So는 p(ti)를 일어난 사건들 속에서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구축한다. 즉 상호 주관적인 면에서 불일치(discordance)가 존재하는 것이다. p(ti)에서 P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So'이 p'(to)을 So'를 위해 «제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So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일종의 거절로써 해석된다 : «행해진 것을 또 행해봐야 소용없다.» 이 대답으로 p'(to)이 P를 실현하는 p(ti)의 구축에 대해서 이유를 제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p'(to)에 대한 이유 제기는 목표된 p'(to)에서 실행된 p(ti)로의 이동과 일치되

며 이 이동은 또한 to/ti 이타성으로 투영되는 목표된 p와 실행된 p 사이의 이타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예문 (19)와 (20)의 차이점은, 예문 (19)의 경우 déjà는 po/pi 이타성의 관계 내에서 To와는 다른 순간에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p(ti)를 도입하는데 이 po/pi 이타성은 다시 to/ti 이타성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유형의 언술들에서 déjà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이런 언술들에서 일어난 작용이 목표된 대상과 영향 받은 대상 사이의 일치의 작용이 아니라, 시간에서 일어난 두 주체에 따라 각각 다른 «두 관점 사이의 불일치»의 작용이기 때문이다. 시간에서 구축된 p는 목표된 영역 속에서 구축된 p'에 이유를 제기한다. 여기서 일어나는 작용은 «ce qui est fait n'est plus à refaire - 행해진 것들은 다시 행할 것이 아니다.»로 해설을 붙일 수 있다.

Déjà에 의해 도입된 실행된 p가 목표된 p에 이유 제기를 하는 것은 다음의 언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21) - J'ai appris que vous vous apprêtiez à tourner «Les nouvelles aventures de l'homme invisible» et je viens solliciter le premier rôle.

- Malheureusement, j'ai déjà engagé l'acteur principal.

예문 (21)에는 시간 속에서 So와 So' 사이에 P(engager l'acteur principal - 주인공 역을 계약하는 것)의 구축에 관한 관점의 불일치가 나타난다. 이 대립은 상호 주관적 작용과 관계가 있는데, 주연 배우 캐스팅을 부탁하러 온 So'는 p를 목표된 영역(p'(to)) 내부에서 구축한다. So'의 이런 관점에 대해 So는 다른 관

점, 즉 다른 가치를 제시 한다 : p는 시간 속에서 구축되는 것이지(p(ti)), 목표된 영역 내에 속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목표된 p와 실행된 p 사이에 분리(dissociation)가 존재한다. 즉 So'의 목표된 범위와 So의 실행된 범위 사이에는 단절이 존재하며, 이 실행된 범위는 목표된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두 관점 사이에 대립(confrontation)이 존재하는 것이다.

VU-Thi-Ngan은 또한 이 경우에 p'(목표된 p)에서 p(실행된 p)로의 가치 이동이 있다고 하였는데, ti에서 P를 현동화 시키는 p(ti)가 To와의 이타성 속에서 발생하는 한, To에서 P를 선형적으로 실현시키는 p'은 가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문 (21)의 해석은 «행해진 사실들 속에서 그것이 실행된 이상, 너에게 목표된 p는 더 이상 목표된 범위에 없으므로 따라서 너는 실망 한다.»가 되겠다.

이처럼 déjà로 인해 p(ti)는 p'(to)과 So'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인식된 p(ti)가 구축되면 p'(to)(목표된 p)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더 이상 목표된 범위 내에 p'(to)은 없는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에서 P의 구축에 대한 «두 관점 사이의 불일치»와 관계된다. «à faire - 행할 것»과 «fait - 행해진 것» 사이의 대립이 «ce qui est fait n'est plus à faire. - 이미 행해진 것은 더 이상 행할 것이 없다.»의 효과를 생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So는 이를 거절의 의미로 해석하게 되는 것이다. VU-Thi-Ngan은 이 효과가 다음의 언술들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

(22) - ...Devant la pâtisserie, il y avait un pauvre qui mendiait :

- «Monsieur, SVP.»

- Je lui dis (ce que je répons toujours en pareils cas) : «J'ai

déjà donné.»

(23) - (Au marchand de journaux qui invite à acheter) : «Non, merci, on m'a déjà lu les articles au téléphone.»

(24) - Voulez-vous souper avec nous?

- J'ai déjà dîné.

앞선 IV장의 예문 (9')에서 보았듯이 VU-Thi-Ngan은 déjà가 없는 복합 과거의 언술에서 목표된 대상과 영향 받은 대상 사이의 일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행된  $p(p)$ 와 목표된  $p(p')$  사이의 이타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불일치 (discordance)가 중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이타성은 각각 다른 두 언술행위주체 간의 구별로써 대체되는  $p/p'$  간의 분리, 단절과 관계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상호 주관적인 범위의 관점 간에 «불일치»가 존재하는 문맥 속에서 déjà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주체의 교체와 관계된  $p$ 와  $p'$  사이의 이타성은 실제로  $t_i$ 와  $t_o$  사이의 시간면의 이타성으로 귀착된다. (21), (22), (23) 예문에서 특징적인 것은  $p(t_i)/p'(t_o)$  이타성의 관계는 각기 다른 두 주체, 즉 각기 다른 두 관점 사이의 대립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p(t_i)$ 와  $p'(t_o)$ 의 일종의 등가물이 각각의 관점의 대립인  $p$ 와  $p'$ 의 대립이라는 것이다. 즉  $p(t_i)$ 와  $p'(t_o)$ 은 시간면 위에서  $t_i$ - $t_o$  이타성으로 대체된다. 따라서  $p(t_i)$ 의 인식이 시간 속에서  $p'(t_o)$ 에 이 유 제기하는 것이다.

그룹 B에서 VU-Thi-Ngan은  $p'$ 이 déj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갖는 언술들을 살펴보았다. p'은 언술행위주체 중 하나에 의해 목표된 p로써 말하여진다. 이것이 déjà가 도입되면 p(ti)는 목표된 p와는 다른 범위 내에서 p'(to)(목표된 p)과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는 것이다. VU-Thi-Ngan은 여기서 목표된 p의 일종의 «제거(élimination)»가 있다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P를 실현시키는 것은 p(ti)이므로 P를 우선 말한 것으로 인식되는 p'은 가치가 없어진다는 의미에서 «제거»라고 볼 수 있겠다. 여기서 그룹 B의 일반적으로 공통되는 해석은 «ne plus à faire - 더 행할 것이 없다.»임을 알 수 있다. 목표된 범위에서 실행된 범위로의 이동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p/p' 이타성은 관계의 출발점에 따라 p(ti)에서나 p'(to), 혹은 p(ti)와 p'(to) 모두의 다양한 균형과 함께 시간면 위에서 ti-to 이타성으로 대체된다.

### 3. 그룹 C - Déjà에 의해 이타성의 관계로 자리 잡은 p(ti)와 p'(to)은 각각 독립성을 갖는다.

Déjà는 p(ti)의 인식이 언술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양상을 갖는 p'(to)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 (25) - Oui, vous êtes tous les mêmes, vous voulez faire du cinéma  
 mais vous ne faites pas les concessions nécessaires.  
 - Vous me l'avez déjà dit.  
 - Je le répète.

예문 (25)에서 p'(to)으로 표기되는 말하는 행위(dire)의 출현소는 To에서 주어진다. 이처럼 p'(to)은 문맥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갖는다.

Déjà는 P를 실현시키는 «말하는 내용»의 다른 출현소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네가 비록 이제까지 단 한 번의 출현소도 없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첫 번째 출현소가 아니다.» 이 해석이 강조하는 것은 To와 관계 맺은 말하는 행위(p')는 단순히 ti에서 말해진 것의 반복일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말하는 행위의 내용은 p(ti)와의 관계에서 다시 주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써 p'(to)은 문맥 내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VU-Thi-Ngan은 그룹 C의 언술이 그룹 B의 언술들과 다른 점이 déjà에 의한 p(ti)의 구축이 문맥 상으로 주어진 p'(to)에 이유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p'(to)은 déjà와 관계없이 독립적인 존재 양상을 갖는다. 우리는 p'(to)을 To에서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인식하고, 시간 속에서 P의 실현인 다른 가치 p(ti)를 구축한다. 따라서 P는 이중으로 실현된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p(ti)에 의한 것, 다른 하나는 p'(to)에 의한 것이다. 이들의 실현은 각각 형태적으로 명백히 드러난다는 점에서 «가시성(visibilité)»을 가진다고 표현할 수 있다. 예문 (25)의 언술에서 각각의 가시성을 지닌 실현은 반복의 가치로써 나타난다.

VU-Thi-Ngan은 특히 이 반복의 가치가 인용을 할 때 주로 쓰이는 dire, répondre 동사와 자주 쓰인다고 언급하며 아래의 두 예문으로 이러한 의미 효과를 설명하였다.

(26) - Il faudrait le lui enlever de force.

- Je t'ai déjà dit que c'était impossible. D'ailleurs, la loi est très mal faite.

(27) - Tu me dit ça toutes les fois, papa, répondit Eve, mais je t'ai

déjà répondu que Pierre ne veut pas quitter sa chambre.

$p(t_i)$ 와  $p'(t_o)$  사이에 일종의 차이(décalage)를 내포하는 문맥, 즉 (25), (26), (27) 같은 언술은 déjà를 없애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déjà의 역할은 단지 이 차이를 나타내 주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VU-Thi-Ngan은 예문 (25)에서 만약  $T_o$ 와의 관계로  $p'(t_o)$ 을 인식한  $p(t_i)$ 를 통해  $p/p'$  이타성 관계가 이유 제기된다면 다음 예문에서의 상황은 틀려질 것이라고 하였다 :

(28) - Un petit veau!

- Vous avez déjà vu un petit veau?

예문 (28)에서는  $p'$ 은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존재 양상을 갖는다. VU-Thi-Ngan은 이 문장이  $T_o$ 에서 언술행위주체( $S_o$ )와 관계를 맺는  $P$ 의 표상(représentation)으로써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S_o$ 를 위해  $P$ 의 실현이 일어난 것이다. 가시성을 갖는  $P$ 의 실현이  $S_o$ 에게 주어지고,  $S_o$ 는 그의 공언술행위주체에게  $T_o$ 와 다른 순간에  $P$ 가 실현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을 던진다. 예문 (28)에서 보듯이  $T_o$ 에서  $P$ 의 실현이 이미 일어났던 범위 내에서  $P$ 에 대한 질문은 오직 시간 속에서만 « $P$ 의 질문»을 나타낼 수 있다. «나를 위한  $P$ 의 실현이 주어진 상태에서 너에게  $T_o$ 와 다른 어떤  $t$ 에서  $P$ 의 실현이 있었니?»<sup>35)</sup>라는 해석으로 déjà와 관계 없이 나타나는  $p'$ 이  $S_o'$ 와 관계를 맺은  $p(t_i)$ 에 이유 제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이는 언술행위주체 중 하나를 위해  $P$ 를 실현시키는 인식인 것이다.

---

35) 이러한 유형의 부정의 대답은 «à aucun moment»을 뜻하는 *ne... jamais*라고 VU-Thi-Ngan은 언급했다. (Petit Robert, 1988. VU-Thi-Ngan(1998) 재인용.)

예문 (28)에서의 질문은 déjà 없이 쓰일 수 있다.

(28') - Vous avez vu un petit veau?

하지만 déjà가 없으면 To에서 p'의 인식은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단지 To의 이타성으로 나타난 ti에 P가 잘 자리 잡았는지만을 묻게 된다. 이는 단순한 확인의 질문에 지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déjà와 함께 쓰인 질문에서처럼 ne...jamais로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예문 (28)에서는 p'이 존재하는 양상을 고려하면서 To와 다른 순간에 P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p(ti)를 도입한다. 따라서 p(ti)는 p'(to)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구축된다. 이 이타성은 시간면에서 ti-to 이타성으로 대체된다. p'을 통해 p(ti)/p'(to) 이타성이 자리 잡는 것이다. VU-Thi-Ngan은 이를 다음의 언술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

(29) - Quand nous en fûmes aux bananes, il pela la sienne en disant : «Ça, j'en ai déjà mangé, à Marseille, au service militaire». Il la regarda ensuite, se mis à rire et l'engloutit.

이 언술에서 p'은 «peler des bananes - 바나나를 먹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써 문맥 내에서 분명히 주어졌다. To에서 P를 실현시키는 p'을 위해 déjà는 p(ti)를 To와 다른 순간에 P(manger des bananes - 바나나를 먹는 것)를 실현시키는 것으로 도입했다. p가 p'과 관계된 To와 선행성의 관계에 있는 ti에 의해 위치 결정 되는 한, p'은 «je»라는 주어와의 관계로 소개되는 첫 번째 가치가 아닌 것으로써 인식된다. 이는 곧 p(ti)를 첫 번째 가치가 되도록 하여 다음의 해

석을 가능하게 한다 : «바나나를 먹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것을 한 번 먹어보았었다.»

이처럼 To에서 P를 실현시키는 p'(to)의 유효성은 To의 외부에서 P를 실현시키는 p(ti)의 인식에 의해 이유 제기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다. VU-Thi-Ngan은 따라서 P가 이중으로 실현된다고 하였으며, 각각의 실현은 모두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ti에 의해 포착된 출현소 p는 P를 실현시키는 p'과 To에서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p/p' 이타성은 ti/to 이타성에 의해 대체된다. p(ti)는 p'(to)보다 선행되어 나타나고, 따라서 예문 (29)에 나타나는 가치는 «경험의 과거»이다. 만약 déjà가 없다면, p'(to)의 인식은 없게 되며, 예문 (29')에서처럼 «manger des bananes - 바나나를 먹는 것»은 ti에서 일어난 단독의 사건으로 해석된다.

(29') - Ça, j'en ai mangé.

VU-Thi-Ngan은 예문 (28)과 (29) 같은 언술에서 만약 우리가 p(ti)가 아닌 p'(to)에 집중한다면, To에서 p'이 나타나는 방법에 대한 인식이 p(ti)를 현재 (To)와 다른 시점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겨지며, 다음에 보여지는 예문에서처럼 p'과 p에 «대립(confrontation)»이 존재하게 된다고 하였다 :

(30) - Il tire de sa poche le masque de plastifiant avec lequel il a déjà effrayé sa femme et le balance par-dessus la balustrade jusqu'à ce qu'il vienne frapper sa fenêtre.

(31) - Cependant, avant d'entrer dans le détail de ces nouveaux

elements, le narrateur croit utile de donner sur la période qui vient d'être décrite l'opinion d'un autre témoin, Jean Tarrou, qu'on a déjà rencontré au début de ce récit.

이 두 언술에서는  $T_0$ 에서 사행  $q$ 와 함께  $x$ 라는 개념이 구축된다. ( $x_{to}(q)$ 라 명명) 이  $x$ 는 déjà에 의해 도입된  $p$ 와는 상관없이 구축된다. Déjà는  $t_i$ 에서 사행  $p$ 와  $x$ 를 관계 맺도록 한다. ( $x_{ti}(p)$ 라 명명) 따라서 우리는  $x_{ti}(p)$ 와  $x_{to}(q)$  사이에 «대립»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x$ 는 서로 다른 두 사행과 관계를 맺으며, 각각의 사행은 서로 독립적으로 지위를 갖는다. 이를 VU-Thi-Ngan은 각각의 사행이 «자율성(autonomie)»을 지녔다고 표현한다.

이러한 유형의 언술에서  $x$ 는  $q$ 와  $p$ 가 갖고 있는 관계 속에서처럼 같은 지위를 갖지 않는다.  $x_{ti}$ 와  $x_{to}$ 라는 각각 구분되는 두 출현소로 간주되는 것이다.  $x$ 는 사행  $q$ 와의 관계 속에서 déjà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나타난다.  $x_{to}(q)$ 에 대해서는 déjà는  $x_{ti}$ 를  $P$ 를 실현시키는 또 다른 가치로서  $x_{ti}(p)$ 를 도입하고, 따라서  $x_{to}(q)$ 와  $x_{ti}(p)$ 는 이타성의 관계에 놓이며, 이  $x_{to}(q)/x_{ti}(p)$  이타성의 관계는  $t_i/t_0$  이타성으로 대체된다. 이 이타성때문에  $x_{to}(q)$ 는  $P$ 를 실현 시키는데 있어 처음의 가치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의 두 예문에 주어지는 의미 효과는 «한 번 행해졌던 것은 더 이상 처음 일어난 일이 될 수 없다.»인 것이다.

$x_{to}(q)$ 와  $x_{ti}(p)$  사이의 대립은 차이(décalage)와 상응하는데, 이 차이는  $x$ 라는 개념이 구분되는 두 사행과 관계 맺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하지만,  $x_{ti}(p)$ 의 인식이  $x_{to}(q)$ 의 유효성을 없애지는 않는다. 여기서 VU-Thi-Ngan은 각각의 가시성과 자율성을 지니는 «공존성»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그룹의 언술들과는 달리, 예문 (30)과 (31)과 같은 언술에서는 문맥 속에서 déjà와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x_{ti}(p)$ 와  $x_{to}(q)$ 의 이타성의 관계가

동시에 이유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그룹 C의 언술들은 déjà와는 관계없이 그 존재 양상을 갖는  $p'(to)$ 이  $To$ 의 외부에서  $P$ 의 실현으로  $p(ti)$ 가 인식되는 것에 의해 이유 제기되지 않는다는 사실로써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겠다.  $p(ti)$ 는  $p'(to)$ 과 이타성의 관계에 있으나 서로를 제외시키지는 않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p'(to)$ 의 유효성을  $To$ 에서  $P$ 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인식하지만, 동시에  $To$ 와의 이타성에서 포착된  $p(ti)$ 가  $ti$ 에서  $P$ 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 인식한다. 그러므로 각각 나타난  $P$ 의 실현은 서로에 의해 명시적으로 드러나게 되고 언술과 상관없이 한정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P$ 의 실현은 대립되지만, 서로를 제외시키지 않고 공존한다.  $P$ 를 실현시키는 두 가치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가 중요한 것인데 따라서 VU-Thi-Ngan은  $p(ti)$ 에 집중하느냐,  $p'(to)$ 에 집중하느냐, 아니면 동시에 두 가지 모두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이 그룹 C의 언술들은 각각 다른 의미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déjà와 복합 과거의 결합의 각각 다른 형태의 경우들과 함께 나타난 다양한 의미 효과에 따른 가치를 다음의 표로써 정리해 보았다.

그룹 A	그룹 B	그룹 C
«예상보다 빨리» 가치 (14)	«행해져야만 하는 것은 행해졌다» 가치 (19)	«반복» 가치 (25)(26)(27)
«대립» 가치 (16)(17)	«이미 행해진 것은 더 이상 행할 것이 없다»(이 미 실현된 것은 더 이상 실현될 것이 없다)» 가치 (20)	«경험의 과거» 가치 (28)(29)
«선행(先行)» 가치 (18)	«행할 필요가 없다» 가 치(거부) (21)(22)(23)(24)	«한 번 행해진 일은 더 이상 처음이 될 수 없다 » 가치 (30)(31)

## VI. 결 론

일반적으로 déjà는 동사의 상적 가치로서 동사 자체의 사행을 제한하여 지속의 déjà(déjà duratif)와 반복의 déjà(déjà intératif)로 구분되고 있다. 또한 déjà가 복합 과거와 결합했을 때, 우리는 이 두 개념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Z. Vendler의 동사 분류법에 따라 살펴보았다. C. Fuchs의 이론에 따라 한 가지 사행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성립할 경우, 동사의 의미나 상의 가치가 문장 전체의 해석이나 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déjà가 이를 결정한다는 것, 그리하여 화자나 청자는 상황에 맞게 해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A. Culioli의 이론을 계승, 발전시킨 J. J. Franckel과 D. Paillard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J. J. Franckel은 모든 언술을 분석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변수, T(시간적 위치결정 작용소의 변수)와 S(ISCP, 사행 구축의 주관적인 변수)를 도입하였다. 그리하여 déjà의 지시치가 T와 ISCP의 연접과 이접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그는 déjà가 나타내는 지시치를 이처럼 T와 ISCP의 연접에 따라 나타나는 작용에 따라 크게 «경험의 과거»와 «예측한 것보다 먼저 일어난 것을 나타내는 plus tôt que prévu», «이미 행해진(실현된) 것은 더 이상 행할(실현될) 것이 없다는 ce qui est fait n'est plus à faire», «이익과 손해의 가치»로 구분하였고, «약화된 앎의 내용»과 déjà, 부정을 나타내는 «ne déjà plus»와 «ne déjà pas»의 지시치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déjà는 T에 의한 사행의 구축이 ISCP에 의한 구축보다 더 중심화된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D. Paillard는 서술 연산 관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déjà를 연구하였는데, 언술들에 따라 A, B, C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A 유형에서는 déjà에 의해

한 영역에서 실제로 구축된 가치와는 다른 가치가 선행적으로 구축되었음을 밝히며 한 가치에서 다른 가치로 이동이 있다고 하였다. B 유형에서는 영역의 불확정성에서 출발하여 이것에 가치를 구분하게끔 하는 지표 구축소가 있다고 하며 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 C 유형은 술어에 관계된 두 주체 사이의 대비/두 상황 사이의 대비가 있다고 밝히며 관계는 재작용된다고 하였다. 즉 Paillard는 A, B, C를 통해 déjà가 인식(prise en compte)을 포착하여 déjà가 나타난 상황과는 다른 관계를 규칙적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A, B, C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불변소를 이동(déplacement)이라 할 수 있는데, A 유형에서는 이 이동이 객관적으로 선행 구축된 가치에서 주관적으로 구축된 가치로 이루어지며, B 유형에서는 선택에 있어 사물의 상태에 관한 첫 번째 불한정 작용에서 사행 가치의 고정화로의 이동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C 유형에서는 첫 번째 주체에게 유효했던 가치가 다른 주체에게도 유효하도록 재검토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처럼 D. Paillard는 déjà 연구에 있어 déjà가 서술 연산 관계의 구축에 참여한다고 밝히며, 시제 차원을 유지하며 déjà의 시간 부사 가치를 근원적으로 재검토하였다. 이 표지를 어원학적으로 연구하여 그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보여 주었다 : «Déjà는 관계를 이동을 산출하는 것으로써 제시하면서 그가 출현하는 언술의 구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 가치를 바꾸거나(A 유형), 영역의 불확정함에서 가치를 판별하는 지표로 이동하면서(B 유형) 말이다. 이 이동의 본질을 구체화하는 것이 바로 «문맥»이다. 이처럼 déjà는 이 관계의 다른 점(주관적, 개념적, 시제적인)을 말하는 문맥을 통하여 관계의 현재(immédiat)를 말해주는 것이다.»

한편 VU-Thi-Ngan은 한 가치와 déjà에 의해 나타난 다른 가치(p'이라 명명)가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déjà 용법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을 밝혀 냈다.

VU-Thi-Ngan은 déjà라는 표지가 복합 과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언급하며

복합 과거의 용법을 세 그룹으로 나타내었는데, déjà와 함께 쓰인  $p(ti)$ 는 그 출현 양상이 다양한 다른 가치( $p'$ )와 이타성의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déjà는  $p(ti)$ 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은 지위를 부여하며  $p(ti)$ 를 재구축하는데  $p'(to)$ 이 나타나는 방법에 따라 이타성의 관계는 각기 다른 의미 효과를 생산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이 결합이 실제로 문맥 속에서  $p'$ 이 나타나는 양상에 따라 각기 구분 되는 세 가지 형태의 경우로 귀착되었음을 밝혔다.

1. -  $p(ti)$ 는  $p'(to)$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구축되는데, 이  $p'(to)$ 의 인식은 déjà와는 분리될 수 없다.  $p'(to)$ 은 문맥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여기서 찾아낼 수 있는 특징은 déjà가  $p(ti)$ 를 구축한다는 사실인데, 이  $p(ti)$ 는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는 범위 내에서  $To$ 의 외부에서  $P$ 를 실현시킨다. 이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 가치 상에 있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또한 다른 첫 번째 가치의 인식이 있음을 가정하는데, 따라서  $p'(to)$ 의 잠재성을 갑자기 나타나게 하는 것이  $p(ti)$ 임을 뜻한다. 의미 효과는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를  $p(ti)$ 나  $P$ 에서, 혹은  $p(ti)$ 와  $P$ 에서 동시에 균형을 잡는다.

2. - Déjà는 문맥 안에서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을 갖는  $p'(to)$ 과의 이타성의 관계 속에서  $p(ti)$ 를 구축한다.  $p(ti)$ 의 인식은  $p'(to)$ 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를 한다.

여기에서는  $P$ 는 목표된  $p$ 를 통해 말하여지고, 이 때문에 목표된  $p(p')$ 는 déjà와는 관계없이 나타나게 된다. 시간 속에서  $P$ 를 실현시키는  $p(ti)$ 의 인식은 목표된  $p$ (시간 밖)에서 실행된  $P$ (시간 안)로의 이동을 내포한다. 시간 안에서  $p$ 가  $P$ 를 실현시키는 한,  $To$ 에서  $P$ 를 우선적으로 실현시키는 목표된  $p$ 는 더 이상 가

치가 없다. 이는  $p(t_i)$ 가 목표된  $p$ 에 이유 제기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제점은  $t_i$ - $T_0$  이타성에서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t_i$ - $T_0$  이타성에서 균형을 조율한다.  $p(t_i)$ 나  $p'(t_0)$ , 혹은 동시에 두 가치의 초점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미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 -  $P$ 의 실현으로써의  $p(t_i)$ 의 인식은 déjà와는 관계없이 나타나는  $p'(t_0)$ 의 유효성에 이유 제기하지 않는다.

우리는  $p(t_i)$ 와  $p'(t_0)$ 이 공존하며 그들이 각각 형태적으로 명백히 드러나고, 언술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한정 작용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T_0$ 에서  $P$ 를 실현시키는  $p'(t_0)$ 을 통해  $t_i$ 에서  $P$ 를 실현시키는 것으로써의  $p(t_i)$ 를 구축했다. 따라서  $p(t_i)$ 와  $p'(t_0)$ 은 이타성의 관계에 있지만 서로를 제외시키지는 않는다.  $P$ 의 실현은 각각 형태적으로 명백히 드러났으므로 가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한정 작용이 일어났으므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p'(t_0)$ 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한,  $p(t_i)$ 의 인식은  $p'(t_0)$ 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문제점은  $t_i$ 에 집중되는데, 의미 효과는 관계가 어떻게 맺어졌느냐에 따라 각각 다르다. 우리는 여러 가치들 중 하나에서 혹은 동시에 두 개의 가치에서 균형을 조절한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는 문맥 속에서  $p'$ 의 출현 양상에 따라 언술들을 구분지은 VU-Thi-Ngan의 연구를 소개하는 것에 그쳤지만, 이를 좀 더 다양한 문맥 속에서의 언술 분석을 통해  $p'$ 의 출현을 하나의 변수로 공식·이론화하여 깊고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BIBLIOGRAPHIE

- BENVENISTE E. (1966) "Les relation de temps dans le verbe français", in Problèmes de linguistique générale 1, Paris, Gallimard, pp. 237-250.
- CERVONI J. (1987) L'énonciation, Paris, PUF.
- CULIOLI A. (1973) Sur quelques contradictions en linguistique, Communication 20, pp. 83-91.
- CULIOLI A. (1977) "Note sur 'détermination' et 'quantification' : définition des opérations d'extraction et fléchage", Rapport d'activité destiné à la commission No.35 du C.N.R.S. ; Laboratoire de linguistique formel(ERA 642), Paris, Université Paris 7, pp. 1-14.
- CULIOLI A. (1981) "Sur le concept de notion", in Bulletin de Université de Besançon, Linguistique appliquée et générale 8, Besançon, Université de Besançon, pp. 62-79.
- CULIOLI A., & DESCLÉS J. P. (1981) Systèmes de Représentations Linguistiques et Métalinguistiques, Laboratoire de Linguistique Formelle, Paris, Université Paris 7.
- CULIOLI A. (1985) Note du séminaire de DEA 1983-1984, Paris, Poitier.
- CULIOLI A. (1990) Pour une linguistique de l'énonciation (opération et représentation) Tome 1, Paris, Ophrys.
- DE VOGUE S. (1995)"L'effet aoristique" in Langue et langage, Mélanges offerts à Antoine Culioli (J. Bouscaren, J. J. Franckel

- et S. Robert (eds)), Coll. Linguistique Nouvelle, Paris, PUF, pp. 247-259.
- DUBOIS J. (1973) Dictionnaire de linguistique, Paris, Larousse.
- DUCROT J., & TODOROV T. (1972) Dictionnaire encyclopédique des science du langage, Paris, Editions du Seuil.
- FRANCKEL J. J. (1986) "Modes de construction de l'accompli en français", in Aspects, Modalité: Problèmes de catégorisation grammaticale, ERA 642, Paris, Université Paris 7(D.R.L).
- FRANCKEL J. J. (1989) Etude de quelques marqueurs aspectuels du français, Genève, Librairie Droz.
- FRANCKEL J. J., & al. (1989) La notion de prédicat, ERA 642, Paris, Université Paris 7(U.R.A 1028 du CNRS).
- FRANCKEL J. J., & PAILLARD D. (1998) Aspect de la théorie d'Antoine Culioli, Langages 129, pp. 52 -63.
- FUCHS C. (1977) "De quelques phénomènes syntaxiques et lexicaux d'aspect", T.A. Information, No. 2.
- FUCHS C. (1988) "Encore, déjà, toujours: de l'aspect à la modalité", Temps et aspect, Paris, PEETERS/SELAF.
- GROSS M. (1980) "Deux remarques sur l'aspect", La notion d'Aspect, Paris, Klincksieck.
- GREVISSE M., & GOOSSE A. (1986) Le Bon Usage, Paris - Louvain-la-Neuve, De Boeck et Duculot, 13e édition.
- HOEPELMAN J., et ROHRER C. (1978) "«Déjà» et «encore» et les

- temps du passé du français", La notion d'aspect, in :  
David, J. et Martin, R. (eds.), Paris, Klincksieck.
- MAINGUENEAU D. (1996) Les termes clés de l'analyse du discours,  
Paris, Mémo Seuil.
- MARTIN R. (1980) "<Déjà> et <Encore> : de la préposition à l'aspect",  
La notion d'Aspect, Paris, Klincksieck.
- NEVEU F. (2000) Lexique des notions linguistiques, Paris, Nathan.
- PAILLARD D. (1981) "Nécessaire et Possible, A propos des relations  
interénoncés", BULAG No. 8, Besançon, Université de  
Besançon, pp. 80-107.
- PAILLARD D. (1992) "Déjà et la construction de l'énoncé", L'information  
grammaticale No. 55, Paris, L'information  
grammaticale.
- VENDLER Z. (1967) Linguistics and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Press,  
New York, Ithaco.
- VET C. (1980) Temps, aspects et adverbes de temps en français  
contemporain, Genève, Librairie Droz.
- VU-Thi-Ngan (1998) Systématique des valeurs du passé composé en  
français contemporain., Thèse de Doctorat, Paris,  
Université Paris 7, pp. 298-329.
- 강수영 (1999) "현대불어의 과거시제 고찰 : 단순과거와 복합과거를 중  
심으로", 인문논총 Vol.54, 서울, pp.105-126.
- 이선경 (1989) "A. Culioli의 언어이론", 언어교육 제12권, 서울, 성신여  
자대학교, pp. 75-87.

- 이선경 (1991) “문법범주 “상(aspect)”의 형식화에 대한 고찰”, 불어학 연구 No.9,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란서학 연구센터, pp. 105-121.
- 이선경 (1992) “상적표지에 관한 연구”, 한글 제215호, 서울, 한글학회, pp. 125-146.
- 이선경 (1994) “A. Culioli의 좌표결정작용이론”, 현대 불란서 언어학의 방법과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pp. 159-214.
- 이선경 (2001) “양상modalité에 관하여”, 프랑스학 연구 제21권, 서울, 프랑스학회, pp. 273-294.
- 이성재 (1999) “관여성 이론과 화용론”, 한국프랑스학회 1999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서울, 한국프랑스학회, pp. 39-52.

# RESUME

## ETUDE SUR DEJA

EOM. Yoon-ju  
Section de la langue et  
de la littérature française  
Cours de maîtrise  
L'université féminine de Sungshin

*Déjà* est caractérisé comme un marqueur polysémique, alors ce marqueur attire l'attention des linguistes tant pour sa distribution complexe que pour ses effets de sens variables.

D'abord, nous choisissons de résumer deux travaux de J. J. Franckel et D. Paillard sur *déjà* dans lesquels la problématique n'est pas posée de la même façon, mais qui apportent une contribution importante à l'étude de ce marqueur par leur problématique même. En général, l'étude du marqueur *déjà* n'a considéré que la construction des procès qui relèvent du plan temporel. Mais J. J. Franckel a choisi la théorie de l'énonciation en considérant la situation énonciative et le double mode de la construction des procès. Il analyse que *déjà* opère la confrontation entre deux constructions,

l'un, relative à un repère subjective (ISCP), l'autre, relative à un repère temporel (T). D. Paillard étudie *déjà* du point de vue de la construction de la relation prédicative. Les différents emplois de *déjà* lui permettent de dégager trois types de ce marqueur. Pour le fonctionnement de type A, la relation prédicative correspond à un changement de valeur, et à la construction - stabilisation d'une valeur de procès pour le fonctionnement de type B. Pour le type C, il y a un contraste entre deux sujets concernant le prédicat ou entre deux situations. Et cette présence contextuelle de la relation est présentée comme rejouée.

Cependant, aucun travail n'est consacré à l'étude systématique de la combinaison de *déjà* avec le passé composé (PC), «temps» morphologique qui présente une grande affinité avec ce marqueur. Alors VU-Thi-Ngan a essayé, au cours de son analyse des énoncés avec ce marqueur, de dégager ce qui est régulier dans son fonctionnement à travers la diversité d'interprétations et de déterminer les paramètres permettant de filtrer ces interprétations.

VU-Thi-Ngan a vu à travers l'examen des énoncés avec *déjà* que ce marqueur introduit  $p$  dans une relation d'altérité à  $p'$  qui, en fonction du contexte a un mode d'existence variable. Selon le mode de présence de  $p'$ , on distingue les trois groupes d'emplois.

Avec le PC aussi, il peut figurer dans ses trois groupes d'emplois.

1.  $p(ti)$  est construit dans un rapport d'altérité à  $p'(to)$  dont la prise en compte est indissociable de *déjà* :  $p'(to)$  n'a pas de mode d'existence indépendant dans l'énoncé.

Ce qui est régulier dans ce cas de figure, c'est le fait que *déjà* construit  $p(ti)$  qui réalise  $P$  en dehors de  $To$ , en tant que n'étant pas la première

valeur ; ce qui signifie qu'on n'est pas à priori sur cette valeur. Cela suppose la prise en compte d'une valeur autre qui est première. VU-Thi-Ngan dit que c'est  $p(ti)$  qui fait surgir la virtualité de  $p'(to)$ .

2. *Déjà* construit  $p(ti)$  dans un rapport d'altérité à  $p'(to)$  qui a un mode de présence indépendant dans le contexte. La prise en compte de  $p(ti)$  remet en cause la pertinence de  $p'(to)$ .

Dans ce cas de figure,  $P$  est dit à travers  $p$  visé( $p'$ ) et à ce titre,  $p'$  a un mode de présence indépendant de *déjà*. Dans la mesure où c'est  $p$  dans le temps qui réalise  $P$ ,  $p$  visé qui a priori réalise  $P$  en  $To$  ne vaut plus. C'est dans ce sens qu'on peut poser que  $p(ti)$  remet en cause  $p$  visé.

3. La prise en compte de  $p(ti)$  comme réalisation de  $P$  ne remet pas en cause la pertinence de  $p'(to)$  qui a un mode de présence indépendant de *déjà*.

VU-Thi-Ngan dit qu'on a affaire à une coexistence de  $p(ti)$  et  $p'(to)$  au sens où ils ont chacun une visibilité et une autonomie. Par rapport à  $p'(to)$ , en tant que ce qui réalise  $P$  en  $To$ , on construit  $p(ti)$  en tant que renvoyant à ce qui réalise  $P$  en  $ti$ .  $p(ti)$  et  $p'(to)$  sont donc dans un rapport d'altérité mais ils ne s'annulent pas. Donc, chaque réalisation de  $P$  a une visibilité et une autonomie.

Cette étude de *déjà* centrée sur sa variation ne vise pas à établir un nouvel inventaire de ses emplois. Elle propose un format de description qui, partant de son identité sémantique, permet de rendre compte de très grande diversité de ses emplois.